

일반

가치에 대한 노동이론인가 노동에 대한 가치이론인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다이앤 엘슨의 해석과 그 영향들*

**The Labour Theory of Value or the Value Theory of Labour?:
Diane Elson's Interpretation on Marx's Theory of Value**

박지훈**

이 글의 목적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해 영국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다이앤 엘슨이 제시한 해석과 그 함의들, 그리고 영향들에 대해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엘슨은 우리가 흔히 노동가치론이라 번역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이론’과 자신이 주조한 표현인 ‘가치에 대한 노동이론’을 구분한 후 후자를 마르크스의 가치론으로 간주한다. 즉, 여타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엘슨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녀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기각하고 그와 이론적 대상 자체가 다른 가치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후 몇몇 중요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하비와 밥 제습이다. 이 때문에 엘슨의 해석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하비와 제습이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를 해석하고 수용하는지 적절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엘슨의 해석은 간과되어 왔다. 이에 이 논문은 그녀의 해석에 대해 해설하고 그것의 함의 그리고 그 해석이 하비와 제습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주요어: 노동가치론, 노동에 대한 가치이론, 카를 마르크스, 데이비드 하비, 밥 제습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parkism@gmail.com).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해 영국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다이앤 엘슨이 1979년 제시한 해석과 함의들, 그리고 영향들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많은 이들에게 케케묵은 혹은 과도하게 사변적인 이론으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보재의 증가나 비물질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론의 현재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석들 가운데 하나, 더군다나 1970년대 말 제시된 해석을 뒤늦게 검토하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훈고학적 유희로 치부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정치경제학적 고담준론이 왜 하필 비판지리학 학술지에서 검토되어야 하는가라는 불만 어린 문제제기나 도대체 다이앤 엘슨이 누구기에 그녀의 해석을 검토하자는 것인가라는 짜증 섞인 반응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먼저 왜 비판지리학자들이 엘슨의 해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자.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엘슨의 해석이 데이비드 하비와 밥 제솅에게 미친 영향 때문이다. 이들이 국내외의 많은 비판지리학자들, 보다 넓게는 인문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참조되고 있는 이론가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작업이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단일한 이론체계도 완결된 이론체계도 아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해석이나 활용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하며 그중 어떤 것들은 서로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충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의 상황이 『자본』 혹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이론적 토대에 해당하는 가치론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그것의 논리적 오류나 역설의 존재가능성 그리고 헤겔 및 고전정치경제학과의 연관성

등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에 엘슨이 자신의 해석을 제시했던 197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엘슨은 그 이론에 대한 독창적 해석을 제시한 후 그것을 이후 수십 년간 수행된 자신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기반으로 활용했는데, 무엇보다도 그녀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고 대안적 가치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리고 하비와 제습은 둘 다 엘슨의 해석을 수용한다. 때문에, 이들도 엘슨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여타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엘슨의 해석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스트 경제학, 나아가 지리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논외로 하더라도 — 하비와 제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컨대, 엘슨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을 갖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마르크스 이론의 조우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하비와 제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필요조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해석은 국내의 비판지리학계만이 아니라 비판적 인문사회학계 전체를 통틀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¹⁾

1) 국내에서는 약 30여 년 전 이정원(1989: 67~68)이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엘슨의 논의를 오독한 채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인용한 적이 있다. 아래에서 보여줄 것처럼, 엘슨은 투하노동학파만이 아니라 루빈의 해석에 의존하는 추상노동학과 혹은 가치형태적 접근에도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원은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엘슨이 루빈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서술했다. 한편, 이후에는 김계환과 임일섭(1992: 230)이 사이먼 모훈과 수잔 힘멜바이트의 해석, 즉 가치에 관한 추상노동이론(abstract labour theory of value) 혹은,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면, “추상노동 가치이론”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 엘슨을 거론한 적이 있으며, 권영경(1996)이 역시 투하노동학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치의 내재적 척도와 외재적 척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엘슨을 인용한 적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주형(2004: 306)이 이진경의 『자본을 넘어선 자본』

또한, 이런 사정으로 인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둘러싸고 상대적으로 최근 발생한 국내 논쟁들, 가령 앞서 언급한 인지노동이나 정보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치론 논쟁들에서도 엘슨의 해석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엘슨의 해석과 함의 그리고 영향들을 소개하고 해설함으로써 이러한 결여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다음의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절에서는 엘슨이 제시한 해석의 요지와 그것의 출현배경에 해당하는 논쟁, 그리고 그 논쟁에서 엘슨이 취한 입장을 설명한다. 3절과 4절에서는 기존 해석에 대한 엘슨의 비판을 다룬다. 5절에서는 엘슨의 본인의 해석을 개괄한다. 6절에서는 그러한 해석의 몇 가지 함의와 그것이 하비 그리고 제습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다. 결론에서는 엘슨의 해석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 후 이 글의 목적에 대해 재론하고 그 서술방식을 옹호한다.

2. 엘슨의 핵심 주장과 출현 배경

엘슨은 자신이 편집한 편저 『가치』의 마지막에 실린 장문의 논문에서 기이한 질문을 제기하며 글을 시작한다. “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무엇에 대한 이론인가?”(Elson, 1979: 115; 이하 이 글에 대해서는 쪽수만 표기). 질문 자체에 이미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말장난 혹은 오류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이 자문에 대해 엘슨은 상당히 의외의 답변을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마르크스 가치론의 이론적 대상은 가치가 아니라 노동이다. 즉, 그

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치론에 대한 그의 해석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엘슨을 인용한 적이 있다. 좀 더 최근에는 역시 지주형(2015: 268)이 이토 마코토와 엘슨의 ‘비주류적’ 해석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적이 있고, 박지훈(2020)이 나일링 섬과 밥 제습의 문화정치경제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엘슨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에 반해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관련된 그녀의 논문 몇 편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엘슨 외, 1998).

것은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theory of value)’이 아니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theory of labour)’이다. 이에 엘슨은 우리가 흔히 노동가치론이라 번역하는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론(labour theory of value)’과 자신이 주조한 표현이자 해당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이론(value theory of labour)’을 구분한 후,²⁾ 후자가 바로 마르크스의 가치론이라 주장한다. 요컨대, 비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가치론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의 가치론이며 마르크스는 그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각한 후 그와 이론적 대상 자체가 다른 새로운 가치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물론, 이 주장은 상당히 복잡한 해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다음 절에서부터 이뤄진다.

대신 여기서는 이 해석의 출현배경에 해당하는 어떤 논쟁과 그 논쟁에서 엘

-
- 2) 물론, 노동가치론과 노동가치설은 각각 Arbeitswerttheorie와 Arbeitswertlehre를 번역한 용어들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주로 labour theory of value 혹은 드물게는 labour-value theory로 영역된다. 한편, 알프레드 사드-필류(2011: 207)와 같은 이는 theory of labour value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마르크스 본인의 경우 Arbeitswerttheori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는 가치론, 즉 Werttheorie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가령, Marx 1881/1989, 533 이하를 참조). 여기서 Werttheorie는 종종 theory of value로 영역된다. 하지만, 하비와 제슈 그리고 미하엘 하인리히 등은 그것을 value theory라 영역하기도 한다. 엘슨이 이런 표현의 문제를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녀 역시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value theory로 번역하고 그것의 대상을 노동, 즉 labour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글 전체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이는 그 이론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차이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론’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이론’이라는 표현들보다 양자 간 차이를 좀 더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번역어에 대한 고민을 요청하셨다. 필자 역시 그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지주형(2015: 268)이 사용한 적이 있었던 ‘노동가치론’과 ‘가치노동론’의 대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단 엘슨의 해석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 글에서는 반복해서 가치론의 이론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녀의 논의를 따라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려 했다.

슨이 의도한 바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1960년에 출판된 스라파의 문제작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라파의 원래 목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박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는 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몇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생산, 잉여, 그리고 계급 등을 중시하는 고전 정치경제학, 특히 리카도 경제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한계학파의 자본이론, 특히 생산함수 내에서 자본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순환논증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 책의 출판 직후 영미권 주류경제학계 일각을 달군 논쟁, 즉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와 스라파주의자들과 미국 케임브리지시 근교 대학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케임브리지-케임브리지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그는 리카도 경제학의 전통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론이 없어도 가격과 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제시하여 이른바 네오리카도학파의 성립에 기여하게 된다(Sraffa, 1960).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흔히 리카도 경제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되는 마르크스의 경제학에도 파괴적인 함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리카도 경제학과 달리 스라파 경제학에서는 노동가치론이 없어도 가격이나 이윤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리카도 경제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노동가치론도 이론적 과잉(redundancy), 즉 그냥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나아가 만약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불충분하게 다루었다고 평가되는 문제, 그리하여 이후 수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신했던 가치와 가격의 전형문제 역시 쓸데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란 기껏해야 없어도 되는 여분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 이론적 일관성마저도 결여한 헛소리에 해당한다. 이에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해 스라파주의자들의 공박이 시작되었다. 가령,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노동가치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바로 그 가치론이 유물론

적 이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teedman, 1977). 이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영국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협의회 회보(Bulle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나 『신좌파평론』 그리고 『자본과 계급』 같은 학술지들만이 아니라 몇몇 저서들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엘슨의 편저와 그 책에 실린 그녀의 논문은 이 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엘슨이 취한 입장은 간단하지 않다. 엘슨은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타당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는 스라파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오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해석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돌아가자. 그중 당시 영미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계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경제학자들, 가령 모리스 돕이나 폴 스위지, 로날드 믹 등과 스라파주의자들은 사실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이해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스라파주의자들이 비판한 마르크스의 가치론도 사실은 흔히 투하노동학파로 분류되는 바로 이들의 해석이다. 이에 해당 논쟁에서 엘슨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스라파주의자들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이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 역시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 경우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은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서 타당하지만 마르크스 가치론에 대한 비판은 되지 않는다.

한편 그 과정에서 엘슨은 오직 투하노동학파의 가치론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가령, 그녀는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반비판을 시도했던 여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이 아니라 루빈과 알튀세의 해석, 즉 흔히 추상노동학파 혹은 가치형태론적 접근으로 간주되는 해석 등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 상황은 <표 1>처럼 축약될 수 있다. 여기서 입장1에 해당하는 스라파주의자들은 사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아니라 입장3을 비판한 것이다. 입장2와

<표 1>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

입장1	입장2	입장3	입장4	입장5	입장6
스라파주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가치에 대한 노동이론(노동가치론)'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에 대한 가치이론	
가치론의 불필요성 혹은 비일관성 지적 (특히, 입장3을 비판)	가치론은 잉여 노동에 대한 착취를 증명하기 위한 이론 (스라파주의 반비판)	가치론은 가치=가격의 해명을 위한 가격결정이론 (전통적 해석)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마르크스와 리카도의 차이를 강조(스라파주의 반비판)	가치론은 노동의 생산부문별 배분에 대한 이론 (입장3의 대안)	가치론은 역사적으로 종별적인 자본주의적 노동형태와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이론
스티드만, 로손, 허치슨	암스트롱, 글린, 해리슨	둡, 스위지, 믹, 모리시마	힘멜바이트, 모혼	루빈, 알튀세	엘슨

출처: 필자 구성.

입장4는 그러한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고 입장5는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은 추상노동학파의 해석 혹은 가치형태적 접근이다. 이 상황에서 엘슨은 입장2부터 입장5까지를 모두 비판한 후 입장6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도 자동으로 기각하려 한다. 이 맥락에서 엘슨의 해석은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수용하는 해석과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체로 투하노동학파나 추상노동학파 중 하나를 따르거나 본인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양자 사이에서 절충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수용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들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치론도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하는 해석에 불과하다.³⁾ 그에 반해 엘슨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폐기하지 않

3) 이는 대부분의 국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이들도 투하노동학파 혹은 추상노동학파의 해석을 따르거나 노동가치론의 폐기를 주장한다. 이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이진경의 해석이 흥미롭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엘슨과 동일한 해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으면서도 투하노동학파나 추상노동학파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비와 제숍은 바로 엘슨의 해석적 전통을 따른다. 아울러 바로 이 때문에 하비와 제숍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엘슨의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좀 더 널리 알려진 투하노동학파나 추상노동학파의 해석을 대입하게 되면 그들의 이론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하비와 제숍에 대해서는 6절을 보라).

3. 기존 해석들의 내용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비판

기존 해석들에 대한 엘슨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각각의 내용과 정치적 함의들에 대한 개별적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적 비판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만을 다룬다.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의 노동가치론과 마르크스의 가치론의 관계에 대해 이진경은 엘슨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의 수정이나 확장이 아니라 노동가치론의 공리계 내부에서 결정불가능한 명제”를 제시하여 “그 공리계에 내재하는 이율배반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해체”했다(이진경, 1998: 139). 물론, 마르크스는 한편으로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의 “논지를 좀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서” 노동가치론의 논의를 진척시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고전경제학의 관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난점과 궁지, 이율배반을 다시 찾아내고 드러낸다.” 전자의 작업으로 인해 마르크스는 고전정치경제학의 계승자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내적 비판’의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에 이진경(2004: 123)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노동가치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으로 해석한다. 최소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엘슨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 이 맥락에서 지주형(2004: 306)은 이진경의 해석이 그리 새롭지 않다고 말한다. 즉, 영국에서 이런 해석은 이미 1970년대 말에 제시되었고 그 이후 다른 이론가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의 맥락에서 이진경의 견해는 독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이진경(1998: 140)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격결정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가치론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엘슨 역시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가격이론으로 해석하는 시도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여줄 것처럼, 엘슨은 가치론이 가격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해석에 대한 비판

엘슨의 첫 번째 검토대상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특히 착취의 증명을 위한 이론으로 간주하는 해석이다. 엘슨에 의하면 이는 당시 영국의 좌파 활동가들에 의해 선호되던 해석이었다. 특히,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협의회 내에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던 대표적 인물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암스트롱, 글린, 그리고 해리슨이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가치론은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임을 천명하는 이론이다. 둘째, 노동가치론 없이는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를 증명할 수 없다. 셋째,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착취를 증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넷째, 착취를 증명하지 못하는 가치론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스라파주의자들에 대한 반비판으로 제시된 이 해석은 결국 노동가치론을 폐기한 스라파 경제학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엘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둘째,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는 마르크스의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에는 마르크스 가치론의 정치적 함의를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그런데 이들의 정치는 마르크스의 정치가 아니라 리카도 사회주의자들이나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연권 정치와 유사하다(115~116쪽). 여기서 엘슨은 극히 짧은 설명만을 제공한다. 또한, 그녀의 논평 중 일부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노동이 갖는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치론을 착취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인상을 주어 독자를 분노케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보완적 해설이 필요한 듯하다.

비판의 요지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해석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분석적 목적에 공들여 구분한 범주들을 과잉 혹은 여분으로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가 하지 않을 주장, 심지어 그가 반박하려 했던 주장을 그의 주장으로

둔갑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1970년대 영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노동이 가치나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식의 단순한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령, 상품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할 때도 그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리고 (상품)가치를 구분했고⁴⁾ 이를 노동과 연결할 때는 최소한 노동의 이중적 성격을, 즉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을, 더 나아가서는 사적 노동, 사회적 노동, 구체노동, 추상노동을 구분했다. 여기서 엘슨의 강조점은 마르크스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5절을 보라). 하지만, 활동가들의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정치적 선동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마르크스의 구분을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사례만 추가로 설명하면 마르크스는 사용가치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사용가치’와 ‘상품으로서의 사용가치’를 구분한다. 또한, 그중 어떤 것이든 사용가치의 일차적 원천은 자연이다. 가령, 그 자체로서의 사용가치들 중 대기 중 공기나 대자연의 목초지는 심지어 노동이 가미되지도 않았지만 사용가치를 갖는다. 때문에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용가치와 노동에 대해 논할 때는 노동의 자연의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 마르크스에게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그냥 노동이 아니라 구체노동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용가치와 노동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구체노동의 자연의존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지금 누군가 노동이 가치의,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 구체노동이 사용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이는 그냥 잘못된 주장

4) 이는 『자본』 그리고 이후 출판된 저술들에만 적용된다. 가령, 1859년 출판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품에 내재한 두 요소로 간주했다. 하지만, 『자본』에서는 사용가치와 (상품)가치를 상품의 두 요소로 제시한다. 여기서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들의 교환비율들이자 가치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다(사용가치에 대해서는 Marx, 1859/1987: 269ff.; 1867: 45ff.을 보라). 실제로 「고타강령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이 모든 가치나 물질적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용 입문서’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 조롱한 바 있다. 또한, 그런 수준의 입문서에 쓰일 때조차도 그 진술은 다음의 경우에만, 즉 노동은 그것의 자연적 대상 및 생산도구 혹은 수단과 함께 수행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을 때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런 조건들에 대해 침묵하고 지나가는 것은 ‘부르주아적 어법’에 불과하다 (Marx, 1875/1989: 81).

둘째, 노동가치론은 원래 부르주아들의 주장이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함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해석의 정치적 함의와 그에 대한 엘슨의 평가와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노동가치론의 유래, 마르크스 가치론의 독창성, 그리고 노동가치론의 위기와 같은 문제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노동가치론의 기원을 둘 중 하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로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로크에 의하면 소유의 자연적 근원은 사적 개인들의 노동이다. 때문에 만약 이것도 노동가치론이라면 이때 그것은 노동과 자연적 소유권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반해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를 노동가치론의 선구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국부』에서 그가 사슴 사냥과 비버 사냥을 사례로 상품가격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 논한 부분을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노동가치론은 각 동물의 사냥에 지출된 시간, 즉 각 상품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시간이 그 동물들(상품들)의 가치(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노동가치론은 로크에게서 유래했는가, 스미스에게서 유래했는가? 그것은 소유의 자연적 권리에 대한 이론인가 상품의 가격(=가치)에 대한 이론인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의 경우 어떻게 생각했는가이다. 마르크스는 둘 중 누구도 가치론의 기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가치론의 기원, 나아가 “정치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어느 정도

까지는 통계학의 창시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은 잉글랜드의 윌리엄 페티이다(Marx 1867/1996: 278).⁵⁾ 다시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구체노동의 자연의존성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자. 이는 마르크스에 의해 여러 차례 강조된 사안이지만 사실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는 페티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며 그는 이 17세기 경제학자를 반복해서 인용한다.⁶⁾ 또한, 페티는 노동분업을 생산력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스미스가 편공장 스케일에서의 분업, 즉 공장 내부의 분업에만 주목한 데 반해 페티는 시계공장 내부의 분업만이 아니라 도시 그리고 나라 전체 스케일에서의 사회적 분업이 부의 창출에 대해 갖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페티가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당시 소국이었던 잉글랜드가 유럽 대륙의 강대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페티는 위와 같은 발견을 바탕으로 잉글랜드의 부국강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연적 조건이나 인구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시도가 최초의 국가통계적 작업으로 간주되는 『정치산술』로 이어진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로써, 특히 구체노동의 자연의존성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라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페티는 철학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동시대 이론가 홉스와 달리 철학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시킨 최초의

5) 지금까지 간략히 제시되는 학설사적 정리, 즉 페티와 브와기에베르부터 리카도 그리고 시스몽디까지의 논의는 1859년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 나오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Marx, 1859/1987: 292ff.를 보라). 이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의 다른 문헌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추가했다. 한편, 상기한 것처럼 1859년의 마르크스는 여전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품의 두 요소로 제시한다. 이에 학설사적 설명을 하면서도 마르크스는 (상품)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정립하는 노동에 대해 말한다. 그에 반해 『자본』에서 상품의 두 요소는 사용가치와 (상품)가치이다. 이것이 노동의 이중적 성격, 즉 구체노동 및 추상노동과 각각 연결된다. 즉, 1859년의 마르크스는 여전히 상품의 두 요소와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범주 체계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때문에 여기서 소개되는 학설사적 내용을 읽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감안되어야 한다.

6) 가령,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페티가 말한 것처럼, 노동은 그것의 아버지이고 대지는 그 어머니이다”(Marx 1867/1996: 53).

인물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부분적으로나마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라 지목하게 된다.⁷⁾ 하지만, 페티는 사용가치와 구체노동, 그리고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교환가치를 화폐와 동일시했고 화폐를 귀금속과 동일시했다. 때문에 페티에게 교환가치와 연계된 노동은 추상노동이나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금이나 은을 발굴하고 운반하는 특수한 구체노동이다.

교환가치를 노동시간의 한정적 비율 및 자유경쟁과 결부시킨 최초의 인물은 잉글랜드가 아니라 프랑스의 브와기에베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치경제학은 브와기에베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품들의 교

7) 오늘날 많은 이들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동시에 사회물리학에도 지대한 기여를 한 벨기에의 아들프 케틀레를 근대 통계학의 창시자로 간주한다. 케틀레는 예측을 목적으로 사회적 규칙성을 밝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초의 인물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나 그의 동료들, 가령 쿠겔만과 같은 이는 케틀레의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에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인 1857년 전에도, 가령 뉴욕 트리뷴의 통신원으로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케틀레를 인용한 적이 있다. 1853년 1월 28일 작성되어 그해 2월 17일과 18일에 게재된 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케틀레 씨는 1829년 출판된 범죄학에 대한 계산에서 1830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범죄의 양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들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Wells, 2017: 3에서 재인용). 또한, 케틀레는 “평균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마르크스도 ‘평균’과 관련하여 『자본』의 1권과 3권에서 그를 한 번씩 인용한다. 나아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케틀레는 규칙성을 보이는 사건들에 내적 필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마르크스는 케틀레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비판적이다. 즉, 그는 평균과 관련된 개념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고 범죄 등과 관련한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실제 예측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러한 규칙성에 내적 필연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필연성을 해석하는 작업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마르크스는 케틀레가 183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한다(Marx, 1869/1988: 232). 즉, 마르크스는 1829년 출판된 케틀레의 통계적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페티를 오직 ‘부분적으로만’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관점은 통계적 방법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도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규칙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역시 중요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환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루이 14세 황실과 귀족들의 황금욕을 경험한 프랑스적 전통에서 그는 화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는 화폐가 정상적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망친다고 생각했다. 이후 교환가치를 노동시간과 ‘무의식적으로’ 연결한 브와기에베르와 달리 이를 ‘의식적으로’ 연동시키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프랭클린은 스미스의 『국부』가 출판되기 30여 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부의 척도는 결국 노동시간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주창한 최초의 인물은 근면과 성실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프랭클린이며 이 맥락에서 오늘날 그의 이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은 자기계발서의 저자가 설립한 회사에 의해 시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다이어리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는 노동시간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이질적 인간노동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식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를 오직 현실적 사안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만 다룸으로써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체계화는 그 자신의 업적에 부합하는 명성을 얻지 못한 비운의 정치경제학자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스튜어트이다.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미스가 제시한 가치론, 즉 노동시간과 가치(=가격)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주장들이 제기된 이후 그것들을 기반으로 출현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모든 생산자들이 각자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단순상품생산의 경우 노동가치론을 명확하게 적용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지주가 존재하는 경제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동요했다. 즉, 위에서 소개한 사냥의 사례는 두 사냥꾼 모두가 각자의 사냥수단(생산수단)을 소유한 단순상품생산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노동가치론을 천명했지만 그것을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는 주저했다. 이를 적절히 비판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서도 순수하게 노동시간이 가치크기를 결정하는 이론을 발전시킨 이는 리카도이다.⁸⁾ 하지만, 리카도는 오직 가치의 양만을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론을 화폐에 대한 이론과 연결하지 못했다. 또한, 리카도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한다. 한편, 리카도와는 논쟁 과정에서 프랑스의 시스몽디에 의해 필요노동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이러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한다. 때문에 마르크스 본인이 제공한 이 설명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독창성, 특히 리카도와 마르크스 사이의 차이를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된다. 즉, 리카도는 가치의 양적 측면만을 다루었지만 마르크스는 그것의 질적 측면도 함께 다루었다는 해석이나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자본주의적 노동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리카도와 다르다는 식의 해석도 이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잉여가치와 추상노동이라는 범주,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 그리고 가치형태에 대한 분석이 각별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면 한 가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것은 근대적 가치론을 수립하려 한 인물들이 노동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새로운 사회의 성립과 국부를 위한 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중시했다. 이런 점에서 가치와 부의 창출에 있어서, 보다 넓게는 부르주아 사회의 성립과 발전과 관련하여 노동에 주목했던 이들은 원래 부르주아 이론가들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로크의 주장은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적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방

8) 1847년 출판된 『철학의 빈곤』에서 마르크스는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인용한 리카도에 의하면, 스미스는 노동시간을 교환가치의 원천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교환가치의 본래 원천을 그토록 정확히 규정”했음에도, 아울러 “그 어떤 제약 없이 그러한 원칙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적용을 “원시적이며 야만적인 상태로 한정”했다. 즉,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해서 스미스는 “노동 이외의 다른 가치 척도도 제시”했다. 그는 어떤 경우 곡식의 가치가 표준척도라고 했고 다른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 표준척도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Marx 1847/1976: 122에서 재인용).

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또한,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 즉, 맬더스와 같은 인물은 예외지만 — 노동에 대한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의 강조는 자본주의적 산업에 기반한 국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로서는 부의 원천을 상업적 활동이나 금융적 투기 혹은 토지가 가진 신비한 힘에서 찾으려는 이들을 논박하고 자본주의적 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론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맥락에서 노동가치론은 원래 부르주아 이론가들의 이론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노동가치론에 기반한 정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를 비판하고 철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의 정치가 아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노동가치론의 위기라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일단, 상기한 것처럼 노동가치론은 부르주아 이론가들의 이론이다. 하지만, 오늘날 부르주아들은 노동의 신성시 혹은 노동에 대한 강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최초 부르주아들에 의해 그리고 부르주아들을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게 아니라 흔히 노동가치론이라 불리는 그들의 가치론이 이미 위기에 빠졌었다는 점을, 그리하여 더 이상 부르주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주창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최근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보재나 인지노동의 증가를 두고 노동가치론의 위기에 대해 논하지만, 이는 오직 소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만 증시되는 논쟁이다. 주류경제학자들에게 있어 노동가치론은 19세기 중후반 이미 위기에 빠지고 대체된 가치론일 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설사 교과서들은 고전정치경제학의 가치론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가치론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한 후 그 이론의 위기를 1870년대 발생한 한계혁명과 연결한다. 즉, 객관적 가치의 존재를 승인하는 노동가치론은 한계혁명 이후 등장한 효용가치론 혹은 주관적 가치론에 의해 위기에 빠지고 대체되었다는 것이다.⁹⁾ 하지만,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9)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이것이 19세기 상황까지만 적용되는 것임을 적절히 지적하셨다. 20세기 이후에는 주류경제학계 내에서도 초기 한계효용학파의 가치론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노동가치론이 아니며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계승한 인물이 아니라 그 대안적 가치론을 제시한 인물이라는 것이 엘슨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노동가치론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의해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특히 노동가치론의 위기나 그와 관련된 저항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론의 논리적 모순을 포착한 천재적 인물 마르크스가 대안적 이론을 고안했고 그것이 기존 이론의 현실적 위기와 그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면, 이는 마르크스가 그토록 비판했던 헤겔주의적 환상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을 저술하여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전유럽을 배회하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즉 사실은 그 반대인 것처럼, 가치론과 관련해서도 실상은 반대이다. 즉, 노동가치론은 현실에서 먼저 위기에 처하고 이를 관찰한 마르크스에 의해 연구된 후기각 그리고 대체된 것이다. 한계혁명에 기초한 주관적 가치론의 출현도 그 무렵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노동가치론은 순수히 이론적 관점에 의해서만 기각된 게 아니라 그에 앞서 현실에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최초로 제안한 세력들, 나아가 한때 그 이론을 열렬히 옹호했던 세력들에 의해서도 폐기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로 노동가치론은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분석되고 반박되기도 전에 부르주아 사회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따라 대규모로 출현하게 된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와 항변에 의해 위기를 겪게 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이 모든 소유나 부 혹은 가치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왜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심지어 부르주아의 이론으로 부르주아에게 저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도 그랬다. 다시 스미

한편,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가 다뤄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는 엘슨의 해석을 상세히 설명하는 5절에 언급된다. 엘슨은 교환가능성을 효용과 만족 그리고 사용가치의 차원에서 해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입장이 이미 주류경제학계 내에서도 폐기된 것임을 지적한다(엘슨의 글 155쪽 이하 그리고 이 글의 5절을 보라).

스로 돌아가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미스는 단순상품경제에 노동가치론을 적용했지만,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노동자가 나눠진 경제에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로 다른 계급들이 존재하는 경제에도 노동가치론을 적용하고 그것을 좀 더 순수하게 발전시키려 한 이는 리카도다. 즉, 리카도의 이론에서는 자본가와 지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동시간이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에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리카도의 주장을 차용하여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나아가 이러한 리카도 사회주의자들 중 일부는 그러한 노동가치론의 원류로 로크를 지목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자연적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유사한 관점이 앞서 언급했던 그리고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고타강령의 초안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이 모든 부와 가치의 원천이라는 부르주아적 어법은 이제 부르주아 자신들에 의해서도 점점 더 활용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가치론의 모순은 20대의 마르크스가 쓴 노트에서도 지적된다. 『경철수고』에서 그는 정치경제학자의 이론적 주장과 현실적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그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몫이란 그러한 생산물 가운데 가장 적고 필요불가결한 부분일 뿐이라고, 즉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오직 생존에만 필수적인 만큼일 뿐이라고, 인간성의 증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는 노예 계급의 번식에만 필수적인 만큼일 뿐이라고 말한다. …… 정치경제학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노동을 대가로 획득되며 자본은 축적된 노동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노동자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기는커녕 그 자신을 그리고 그의 인간성을 팔아야만 한다고 말한다(Marx, 1844/1975: 239; 강조는 원문).

요컨대 노동가치론은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주장과 현실적 주장의 모순으

로 인해, 바로 그 부르주아의 이론을 활용했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그리고 심지어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등장하기도 전에 위기에 빠졌다. 마르크스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포착하고 그것으로부터 학문적 탐구를 시작했을 뿐이다(마르크스의 탐구절차에 대해서는 4절을 보라). 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최초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운동을 만든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대시절부터 마르크스가 고민했던 문제 중 하나는 부르주아적 현실에 대한 저항운동의 창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저항운동이 갖는 한계였다. 『경철수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이들이든 (프루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임금들의 균등화를 사회혁명의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든, 그러한 점진적 개혁가들이 저지른 과오들은 무엇인가?”(Marx, 1844/1975: 241; 강조는 원문) 여기서 다시 이 글의 원래 목적, 즉 엘슨의 해석에 대한 소개와 해설로 돌아가자. 엘슨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단 몇 문장만을 썼을 뿐이지만 바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에서 설명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자연권을 회복하려는 정치는 좌파정치 혹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정치는 부르주아들의 착취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연권을 회복하려는 정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반한 정치가 리카도 사회주의자들 혹은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당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지 자연상태와 같은 최초의 근원적 조건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자들과 달리 “가상적인 원초적 조건(fictitious primordial condition)”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원초적 조건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Marx 1844/1975: 271).

끝으로 마르크스의 일차적 관심사는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는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엘슨은 마르크스가 착취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그녀의 주장은 활동가들의 해석이 ‘착취 일반’ 혹은 ‘일반적 착취’와 ‘착취 특수’ 혹은 ‘특수한

착취'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가깝다. 반복하자면 당시 활동가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없을 경우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선호했다. 그런데 정작 마르크스 본인에 의하면 잉여노동은 자본에 의해 발명된 게 아니다. 즉, 피지배계급의 잉여노동에 대한 착취는 전자본주의 사회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생산물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는 노동생산물들이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된 이후 실현된다. 따라서, 그러한 착취는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과 화폐에 대한 설명 없이 해명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피지배계급은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은 사적 계약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순전히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지출 시간 중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즉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중세의 농노는 일주일의 노동시간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일부를 영주를 위해 노동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즉시 분명해진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시간 중 어디까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자본가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연유들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르크스의 관심사는 착취 일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 즉 역사적으로 특수한 착취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그는 고전정치경제학의 개념체계가 결여하고 있던 범주들 혹은 논의들을 추가했다. 가령, 상기한 것처럼 그는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추가했고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했다. 또한, 가치의 크기만을 다룬 리카도와 달리 마르크스는 가치형태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나아가 그 완성도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마르크스는 직접적인 생산영역만이 아니라 유통, 생산의 전 과정, 화폐, 분배, 금융(가령, 이자를 낚는 자본과 가공자본)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정교한 이론을 수립하려 했다. 또한, 그것의 변경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만이 아니라 토지와 지대, 임금과 임노동, (도농관계나 비생산적 계급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국가, 해외무역, 그리고 세계시장과 위기에 대한 포괄적 연구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해석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가진 이러한 측면도 무시한다. 이 맥락에서 엘슨은 착취 일반을 규명하려면 차라리 소유권을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그녀는 활동가들의 해석이 “가치를 탈역사화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가치와 노동시간을 동일시하고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구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판한다(116쪽).

2) 투하노동학파 그리고 가치에 대한 추상노동이론에 대한 비판

여기서는 엘슨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검토한 해석들을 다룬다. 두 번째는 전문적인 경제학자들, 특히 영미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이며, 세 번째는 투하노동학파에 비판적이었지만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영미권 경제학자들의 해석, 즉 모훈과 힘멜바이트의 해석이다. 일단 투하노동학파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가치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사적 해석은 전형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과 관련 없이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형문제에 대해 이른바 신해석을 제시한 인물들 중 하나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던컨 폴리가 경제학설사의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라.

노동가치이론은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저작에서 정점에 이른 고전파 경제학의 통찰력 있고, 풍부한 발전, 그리고 동일하게 칼 마르크스의 비판의 토대가 되었다. ……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는 각자 나름대로 목적을 위해 노동가치론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동가치이론에서 각자 자신의 비전에 가장 잘 맞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 명의 논자에게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그렇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노동가치이론들’을 발견하게 된다. …… 리카도가 …… 전개한 논리적 힘과 분석적인 집요함이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그의 독자들을 매료시켜 거의 경탄하게 만든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 마르크스는 비판적 지성을 발휘하여 리카도의 설명을 보다 예리하고 분명하게 다듬었다(폴리, 1997: 247~251, 255).

요컨대, 스미스와 리카도 그리고 마르크스의 가치론들은 하나의 이론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들의 이론들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이론에 매료되고 경탄한 후 그것을 다듬은 인물에 불과하다. 좀 더 최근 출판된 저서에서도 폴리는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가치 이론을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해 노동 개념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서 노동가치 이론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폴리, 2015: 34). 상기한 것처럼,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견해이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착취의 증명을 위한 이론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제시되기도 하는 이 해석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무엇보다도 가치(=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요컨대, 그것은 일차적으로 가격이론이다. 엘슨에 의하면, 모리스 돕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고전학파만이 아니라 한계주의 경제학자들과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돕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이론들이 일차적으로는 같은 이론적 대상, 즉 가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돕이 볼 때도 이들 간 차이는 있다. 그것은 가격의 결정요인을 생산영역에서 찾는가 수요영역에서 찾는가이다. 여기서 스미스와 리카도 그리고 마르크스가 전자에 속한다. 한편, 이 지점에서부터 마르크스는 고전정치경제학자들보다 좀 더 발전된 노동가치론을 제시한 인물로 간주된다. 돕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양적 차원에서 가치(=가격)을 설

명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역사적 기반, 즉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사회에 대해서도 설명하려 했다. 이에 돕은 마르크스를 슈페터가 제시한 이상적 경제학자에 해당하는 인물로 제시한다. 즉, 마르크스는 좁은 의미의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경제분석’만이 아니라 ‘경제사회학’까지도 함께 수행한 인물이다(Dobb, 1973: 149). 한편, 스위지 역시 양적 가치의 문제와 질적 가치의 문제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독창성은 이 두 문제를 하나의 개념틀 안에서 다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스위지에게 양적 가치의 문제란 생산물들 사이의 교환관계, 즉 가격의 문제이고 질적 가치의 문제는 계급관계에 대한 분석이다(스위지, 2009: 47). 박사과정 시절 스라파와 돕의 논문지도를 받은 믹에게 있어서도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가격이론이다. 이 맥락에서 믹에게 그 이론의 양적 문제는 왜 상품이 현재의 그 특정 가격을 갖는가의 문제이고 질적 가치의 문제란 왜 상품이 가격을 보유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에게 있어 질적 가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구분한 후, 그것들을 하나의 이론틀 안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독창성을 찾는다. 즉,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스미스와 리카도의 이론들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전통의 극단에 모리시마가 있다. 심지어 모리시마는 양적 가치와 질적 가치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독창성을 찾지도 않는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가격결정이론인 동시에 다수의 산업부문을 소수의 부분들로 통합하는 집계계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모리시마, 2010: 29). 그리하여 모리시마에 이르면 마르크스는 현대 수리경제학의 선구자가 된다(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 대해서는 엘슨의 글 116~120쪽과 비교하라).

여기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이 재소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이 바로 이들의 해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엘슨은 이 해석이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이런 점에서 그녀는 투하노동학파에

대한 모훈과 힘멜바이트의 지적을 승인한다. 즉, 투하노동학파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네오리카도학파보다 더 리카도적이다. 나아가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유통영역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한다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물론, 투하노동학파의 해석도 생산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영역은 해명되어야 하는 종속변수(가치=가격)를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위치한 영역으로서의 중요성만 갖는다. 또한,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은 마르크스 가치론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는 마르크스를 존경받아 마땅한 선구적 수리경제학자로 간주하는 모리시마에 이르러 그 극단에 이른다(120~121쪽).

엘슨이 세 번째로 비판하는 대상은 가치에 관한 추상노동이론이다. 이는 바로 위에서 소개한 모훈과 힘멜바이트의 해석이다. 이는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으로 제시되었는데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카도의 가치론은 가치에 관한 투하노동이론인 반면 마르크스의 그것은 추상노동이라는 범주를 중시한다. 둘째, 전자의 경우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이지만 후자의 경우 여러 매개들을 거친 후 가격을 다룬다. 따라서 스라파주의자들의 비판은 리카도의 가치론, 그리고 스라파주의자들보다 더 리카도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적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엘슨은 투하노동학파가 리카도주의자들보다 더 리카도주의적이라는 이들의 비판을 수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이 해석을 비판한다. 첫째, 스티드만의 경우 추상노동이라는 범주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비판 자체가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훈과 힘멜바이트의 주장은 스티드만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들의 주장은 순환적이다. 즉, 이들은 상품형태로부터 추상노동이라는 범주를 도출한 후 상품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추상노동이라는 범주를 활용한다(123~124쪽). 한편, 엘슨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보다 복잡한 가격결정이론으로 간주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끝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추가하자. 첫째, 여기서 엘슨은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또한, 추상노동에 대한 스티드만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엘슨의 강조점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서 추상노동이라는 범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점진적으로 설명된다.

3) 추상노동학파 혹은 가치형태적 접근에 대한 비판

한편, 엘슨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룬 세 해석들의 공통적 오류들 중 하나는 마르크스 가치론의 이론적 대상을 가치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반면, 엘슨은 그 이론의 대상이 노동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오직 엘슨만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엘슨이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즉, 가치에 대한 노동이론과 노동에 대한 가치이론을 구분한 후 후자가 바로 마르크스의 이론이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엘슨에 앞서 마르크스 가치론의 이론적 대상이 노동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중 어떤 이들은 그 이론을 노동의 사회적 분배, 즉 사회 내에서 생산부문별로 노동을 배분하고 그 비율을 조절하는 법칙에 대한 (특수)이론으로 해석했다. 상기한 것처럼, 이 전통을 대표하는 이는 1970년대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이 위기에 빠지자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이로 뒤늦게 주목을 받은 소련의 경제학자 루빈이다. 또한, 헤겔과 관련해서는 루빈과 상당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가치론과 관련해서는 알튀세 역시 루빈과 유사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해석 역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엘슨의 논의를 감안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요점을 통해 먼저 루빈의 주장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과 노동생산물들로서의 사물들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루빈에 따르면, “가치론의 주제는 ……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맺고 있는 상호관계들이다”(Rubin, 1973: 67). 이렇게 보면 루빈

의 해석이 투하노동학파의 해석과 어디서부터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상기한 것처럼, 투하노동학파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시간이 상품의 가치(=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루빈의 표현을 차용하면 이 해석은 가치론을 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과 ‘노동생산물’의 가치(=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루빈은 이를 부정한다. 루빈에 의하면 그 이론은 노동과 노동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이다. 이 맥락에서 루빈은 사실상 그 이론의 대상을 노동이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루빈에게 있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사회 내 가용한 노동력의 생산부문별 분배를 조절하는 보편법칙, 즉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만이 아니라 전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 나아가 심지어는 사회주의적인 사회구성체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법칙의 자본주의적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하지만, 보편적이면 보편적이지 보편적이면서 특수하다는 것, 가령 보편적인 동시에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이런 해석은 마르크스의 어떤 문헌에 의존하는가? 1868년, 즉 『자본』 1권의 초판이 출판된 이듬해 마르크스는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년은 고사하고 단 몇 주 동안만이라도 일하기를 중단한다면 그 어떤 민족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린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이한 양의 욕구들에 부합하는 상이한 양의 생산물들이 상이한 양의 그리고 양적으로 한정된 사회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든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정 비율들로 사회적 노동을 **분배할 필요성**은 사회적 생산의 특정 형태에 의해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현상형태**만을 변화시킵니다. 자연법칙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상이한 조건들 하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한 법칙들이 걸로 드러나는 **형태**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상호연결이 개인적 노동생산물들의 **사적 교환**으로서 표현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비례적 배분이 걸로 드러나는 형태는 바로 그 생산물들의 **교환가치**입니다(Marx, 1868/1988: 68; 강조는 원문).

여기서 마르크스는 보편법칙이 그 모든 역사적 시기에 동일하게 관찰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현상의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표출된다. 마르크스의 사례는 사회적 노동분업이다. 즉, 어떤 사회에서든 가용한 모든 노동력이 동일한 물품생산에 활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맥락에서 사회적 노동분업의 필요성은 보편적이다. 하지만 노동력을 분배하는 원칙 그리고 그 비율을 조절하는 원리는 역사적으로 상이하다. 가령 개별 노동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사적 교환으로 표현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사회적 배분은 상품들의 교환관계에 따라 이뤄진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의 노동이 할당되는가는 엄청나게 방대한 규모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교환관계에 의존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러하다.

왜 그런가?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마르크스가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간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즉, 그 시장매개적이고 이윤지향적인 생산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임노동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타의 생산수단들도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Marx, 1867/1996: 753을 보라). 이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수립은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 즉 노동력의 상품화가 사회 내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Marx, 1867/1996: 177~186). 둘째,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은 마르크스가 세계시장이라 부른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임노동자는 역사적으로 세계시장의 등장 이후 출현했다. 이 세계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최소한 두 가지의 사안이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세계시장이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고전정치경제학자들은 세계시장을 ‘보편적’ 시장으로 간주했다(Gimm, 2016: 218~219). 그에 반해 마르크스에게 있어 세계시장은 헤겔적 의미에서의 ‘개별적인’ 혹은 ‘고유한’ 대상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대상이

다. 특히, 그것은 자국시장 및 그와 연계된 모든 해외시장들의 앙상블, 나아가 그러한 시장들 내에 있는 각종 내부시장들의 총체에 해당한다. 때문에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에서 세계시장은 국가 간 관계, 국가, 그리고 국가 내의 자본, 토지, 임노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복합적인 탐구대상이 된다(Marx, 1857/1986: 160).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에게 있어 세계시장 그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마켓이라 부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세계시장은 최초 십자군 전쟁 이후 콘스탄티노플을 매개로 유럽의 일부 도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스케일에서 출현했다(Marx, 1847/1976a: 574, 1847/1976b, 179).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를 14세기 세계시장이라 부르도록 하자. 이후 15세기 말 신대륙이 발견됨으로써 이른바 16세기 세계시장이 출현한다. 한편,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이후를 “두 번째의 16세기”라 부른 바 있다. 이 시기는 호주와 미국의 서부가 개발되고 중국과 일본이 개항된 이후를 말하는데, 이 무렵 세계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두 번째의 16세기라 묘사하면서 마르크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세계시장이 글로벌한 스케일에 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Marx, 1858/1983: 347). 이 맥락에서 그 스케일을 기준으로 볼 때 세 번째의 세계시장인 ‘19세기 세계시장’부터 대략 글로벌 마켓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사회적 노동분업으로 돌아가자. 자본주의 사회는 위에서 말한 역사적 세계시장들 가운데 16세기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출현했다. 이 맥락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는 그 아무리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전례 없는 스케일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경쟁적인 교환을 전제로 한다. 물론, 마르크스는 시장의 스케일을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았다. 반복하자면, 마르크스에게 그것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 즉 임노동자들이 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존재하고 활용되는가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임노동자들의 출현 자체가 세계시장을 배경으로 한다. 왜냐면 임노동자들은 세계시장의 중심도시들에

서 먼저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세계역사적으로만 존재한다”(Marx and Engels, 1846/1975: 49). 또한, 역시 상기한 것처럼 이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생산부문별로 분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엄청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교환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만의 특징이다.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 노예와 농노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원칙은 그 누구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스케일의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상품들 간 교환관계가 아니었다. 그러한 사회에서의 노동의 사회적 배분은 시장외적 권위의 영향을 받는다(세계시장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Park, 2018: 88~119을 보라).¹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위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가치론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가치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가치법칙(Wertgesetze 혹은 law of valu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위 인용문의 다음 문단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과학이 관여하는 지점은 가치법칙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Marx, 1868/1988: 29). 이에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관련하여 위의 편지에 주목하는 이들은 가치론과 가치법칙을 독특하게 연결한다. 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 가치법칙은 보편적이고 가치

10) 이 문제는 1847년에 출판된 『철학의 빈곤』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진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노동분업만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분업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일만 수행하는 방식의 분업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경쟁이 지배하는 근대적 공업사회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공장 내부의 분업은 고용주의 권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 그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분업, 즉 노동의 사회적 배분은 이와 완전히 반대로 그 어떤 개인의 권위나 통제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자유 경쟁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들 중 하나이다. 이에 마르크스는 사회 전체의 노동분업에 특정한 권위가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수록 특정 작업장 내의 분업에 미치는 통제가 강화되는 이 반비례의 관계를 일반적 수준의 법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Marx 1847/1976: 178 이하를 보라).

론은 그 보편법칙의 자본주의적 사례를 다룬 이론이 된다. 가령, 알튀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오직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치법칙’이라 불렀던 이론의 특수한 사례 혹은 다양한 생산부문들 사이에서 가용한 노동력을 분배하는 법칙의 특수한 사례로서만 이해가능하다”(Althusser, 1977: 87). 즉, 알튀세에게 가치법칙은 보편법칙이고 가치론은 그것의 자본주의적 사례에 대한 이론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알튀세 역시 쿠겔만에게 보낸 마르크스의 편지를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다른 이들은 가치법칙과 가치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뒤메닐과 레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품은 사회적 노동량의 일부를 시장에서 나타내는 가치 또는 교환가치의 담지자이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가치법칙이라 부른 것이다. 그것을 노동가치론이라고도 한다”(뒤메닐·레비, 2009: 19). 즉, 여기서 이들은 가치와 교환가치가 동일한 것인 양, 아울러 가치법칙과 노동가치론이 동일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엘슨도 지적한 것처럼, 이 해석적 전통에 속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세분적인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 어찌되었든 루빈은 가치론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특수 이론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에서 설명할 것처럼 루빈은 분명, 하지만 마르크스와는 다르게, 특히 엘슨이 볼 때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그 모든 사회구성체들에 적용되는 법칙, 즉 ‘일반적 사회학적 법칙’에 대해 말한다. 루빈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그중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다. 즉, 상기한 것처럼, 루빈에게 있어 가치론은 노동의 사회적 분업과정에서 노동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론이고 그러한 분배와 상호관계들은 노동생산물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러하다. 그래서 가치론과 가치법칙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전자는 후자의 사례연구인가? 일단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 본인의 경우 「아돌프 바그너에 대한 방주」와 같은 문헌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국가의 가치법칙”과 “가치론”을 구분해서 썼다는 점이다(Marx, 1881/1989: 537; 가치법칙에 대한 엘슨의 설명도 5절에서 제시된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맥락에서 좀 더 중요한 사안은 여기서 루빈적 해

석의 두 번째 요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위에서 나는 그것의 첫 번째 요점에 대해 기술했다. 즉, 루빈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의 사회적 분배, 이 맥락에서 특히 노동형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 그 해석의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루빈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사회적 분배는 교환가치에 의해 수립된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의 요점들로 인해 루빈의 해석은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사안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가 차지하는 위상이다. 즉, 가치론을 루빈처럼 해석하게 되면 마르크스 가치론의 핵심은 노동들 간의 관계가 사물들 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토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적 전통을 지지하는 이들 중 일부는, 특히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중시하는 이들 중 일부는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를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즉, 투하노동학파에게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적 대상은 가격에 대한 설명인데 반해 이들에게 그것은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적 폭로이다.

다른 하나는 화폐의 중요성이다. 상기한 것처럼 투하노동학파의 대표적 이론가들 중 다수는 가치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구분했다. 루빈도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루빈에 의하면 가치론의 양적 측면은 가치의 크기에 대한 이론이고 그것의 질적 측면은 가치의 형태에 대한 이론이다.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다시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상품)가치의 문제로 돌아가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859년까지의 마르크스와 1867년 이후의 마르크스는 상품에 내재한 두 가지 속성과 관련하여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다. 1859년까지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품에 내재한 두 속성들로 제시했다. 그런데 1867년의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와 (상품)가치를 상품의 두 요소로 제시한다. 여기서 교환가치는 상품에 내재한 요소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교환비율들이자 상품의 또 다른 요소인 (상품)가치의 형태, 즉 가치형태로

제시된다. 때문에 여기서 가치형태란 교환가치의 전개 혹은 실체적 내용으로서의 가치가 조직적으로 표현되는 양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들, 즉 ① 단순한, 개별적인 혹은 우연적인 가치형태, ② 전체적인 혹은 전개된 가치형태, ③ 일반적인 가치형태, 그리고 ④ 화폐형태에 대해 논의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는 화폐형태이다. 따라서 가치론을 루빈처럼 해석하게 되면 이제 가치형태, 그중에서도 화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진다. 요컨대,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가치론이 화폐에 대한 논의와 연동된다. 하지만,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니, 마르크스에 의하면 화폐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를 다루는 것은 투하노동학파가 중시하는 리카도의 가치론 그 자체가 갖는 특징이자 한계이다. 가령,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리카도는 가치크기의 척도로 오직 노동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론과 화폐의 본성 사이에서 그 어떤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Marx, 1881/1989: 534). 즉, 리카도는 화폐를 가치크기의 척도로 다루지 않았다. 때문에 마르크스를 스미스와 리카도의 후임자로 해석하는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에서도 화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루빈은 가치론에 대한 논의에 화폐에 대한 논의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인물 중 하나로 간주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전형문제를 다루면서 화폐를 중시하는 해석들이 바로 루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¹¹⁾

마지막 하나는 루빈의 해석이 자본주의적 역사성을 좀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 논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을 보편노동으로만 간주하면 자본

11) 이는 이른바 신해석을 제시한 이론가들이 루빈의 모든 주장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다. 가령, 상기한 것처럼, 폴리는 신해석의 주장자 중 한 명이지만, 여전히 마르크스를 고전정치경제학의 비판적 계승자로 간주한다. 또한, 뒤메닐의 경우 가치론과 가치법칙을 동일시한다.

주의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워진다. 이 맥락에서 루빈의 해석에서는 마르크스가 새롭게 도입한 추상노동이라는 범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투하노동학과도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투하노동학과와 루빈은 추상노동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추상과 구체라는 이분법에 대해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헤겔을 따라 마르크스도 추상과 구체의 이분법을 사용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간혹 이 이분법은 불명료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체적인 것(the concrete)’은 다양한 결정인자들의 종합을 지칭한다. 이에 그것은 종종 ‘복잡한 것’이라 간주된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것이란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다는 의미에서의 복잡한(complicated), 가령 어떤 수학문제가 복잡해서 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의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서로 연계된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복잡한 혹은 복합적인(complex), 가령 우리가 복합쇼피몰을 지칭할 때 말하는 콤플렉스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것(the abstract)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혹은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일면적(one-sided)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주장은 추상적이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달라”고 말할 때의 ‘추상적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의 반대말로서 일면적이고 ‘단순한 것(the simple)’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헤겔은 구체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즉 종합적인 사고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 일면적이고 단순한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을 ‘못 배워먹은 이(the uneducated)’로 간주했다.¹²⁾ 물론, 추상적 사고가 무조건 기피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분석의

12) 헤겔은 일상적 사례를 들어가며 추상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를 비교한 바 있다. 헤겔이 제시한 사례 중 하나는 이제 막 사형장에 들어선 잘 생긴 사형수였다. 사형장 주위에서 구경을 하던 일군의 귀부인들이 그의 미모에 감탄한다. 그러자 옆에 선 이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의 외모를 찬양하는 이들에 대해 항의한다. 헤겔에게 있어 이들은 모두 그 사형수에 대해 추상적인, 즉 일면적인 사고만 하는 이들이다. 즉, 한쪽에서는 미모에만, 다른 쪽에서는 그가 저지른 흉

과정에서 그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활용된 후 극복되어야 한다. 한편, 이 맥락에서 추상화(abstraction)란 그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에서 하나의 단면만을 따로 떼어내는 사유 속의 과정을 말한다. 즉, 추상화는 정신 외부에 있는 실재 세계가 아니라 사유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마르크스에 의하면 합리적 추상화(rational abstraction)란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고 고정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반복을 피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추상화들 가운데 구체적인 것의 모든 단면을 다 제거하고 남은 가장 일반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추상화(the simplest abstraction)에 해당한다(Marx 1857/1987: 23, 37~38).

그리고 투하노동학파는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이라는 범주들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 즉, 이들에게 구체노동은 질적으로 다양한 모든 노동의 복합 혹은 종합이고 추상노동은 그것의 가장 단순한 추상화, 즉 구체노동의 모든 특질들을 제거하고 남은 노동일반에 해당하는 범주이다.¹³⁾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주목한다. 이내 사형수의 목이 떨어져 나가 바닥을 뒹군다. 역시 사형장에 있던 노파는 그것을 보고 신이 그에게 응당한 처분을 내렸음을, 동시에 신은 다른 모두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에게 동일한 햇빛을 내리고 있음을(즉, 심지어 그 흉악범마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헤겔에게는 이 노파가 바로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이에 해당한다. 헤겔이 언급하는 또 다른 사례들 중 하나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헤겔의 젊은 시절 그가 살던 도시의 시장은 이 책이 자살을 미화한다고 비판했다. 헤겔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면적이고 단순한 사고가 추상적 사고이다(Hegel, 1808/1966).

- 13) 가령, 스위지는(2009: 54)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상적인 노동이 추상적인 것은 오로지 한 종류의 노동을 다른 종류의 노동과 구분시키는 특수한 성격이 모두 무시된다는 명확한 의미에서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추상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것은 간단히 말해 ‘일반적 노동’과 같은 표현이다. 즉 추상적 노동은 인간의 모든 생산적 활동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다.” 폴리(2015: 34) 역시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상품생산사회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일반 또는 추상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즉, 폴리에게도 ‘추상노동 = 노동일반’의 등식이 성립한다. 국내의 몇몇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김수행(2011: 44)은 추상노동을 “구체적 노동으로부터 모든 구체적인 속성을 배제해 버린 인간노동 일반”으로 정의한다. 류동민(2002: 168)도 추상노동을 “구체적 노동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

추상노동은 모든 인간노동에 내재한 생리적 동질성을 지칭하는 범주이다. 그렇다면 비록 그것이 합리적 추상의 결과로 획득된 범주라고 하더라도 그 역사성이 모호해지게 된다. 그에 반해 루빈은 추상노동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한다. 일단 루빈은 동등한 노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는 생리적으로 동등한 단순노동이며, 둘째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노동이고, 셋째는 추상노동, 즉 루빈이 ‘상품경제’라 부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노동이다. 이 맥락에서 루빈에게 추상노동은 생리적으로 동등한 단순노동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생리적 동질성에 대한 검토는 생물학의 과제이지 사회학적 탐구의 주제가 아니다(Rubin, 1973: 138). 한편, 루빈에게 있어 추상노동은 사회적으로 동등한 노동이지만 사회적으로 동등한 모든 노동들이 추상노동인 것은 아니다. 추상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노동 형태이다(Rubin, 1973: 138~139).¹⁴⁾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옳은가? 당연히 루빈의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루빈이 맞다고 할 것이고 투하노동학파의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노동과 관련하여 루빈과 다른 해석을 선호하는 이들도 인정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루빈의 해석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성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이다(류동민, 2000; 사드-필류, 2011, 62~63).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루빈의 해석은 최소한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 세 가지 사안들, 즉 물신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가치론과 화폐의 연계,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성에 대한 부각이라는 점에서

한다.

14) 이와 관련하여 윤소영은 다소 혼란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소영(2009: 90)에 의하면, “추상노동은 구체적 노동의 모든 질적 다양성을 생략한 ‘노동 그 자체’이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스위지와 같은 해석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상적 노동은 구체적 노동이 가치관계를 통해서 추상된 결과일 따름이지요”(윤소영, 2009: 126). 이는 루빈의 해석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루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노동이라는 범주와 관련하여 그는 위에서 설명한 두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상기한 것처럼 이는 루빈의 해석이 갖는 처음 두 가지의 요점들과 관련이 있다.

그에 반해 루빈의 해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안도 있다. 이 점이 그의 해석과 관련한 세 번째의 요점이다. 상기한 것처럼, 루빈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의 사회적 분배에 대한 이론이고 그러한 분배는 상품들 간 교환관계에 의해 수립된다. 여기서 루빈은 다분히 위험한 주장을 추가한다. 즉, 루빈에 의하면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여타의 유형을 갖는 경제들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생산 관계가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 …… 그리고 생산의 기술적 수단의 분배에 인과적으로 의존함을 관찰할 수 있다”(Rubin, 1973: 29). 여기서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이나 생산의 기술적 수단들, 그리고 그것의 분배는 루빈이 “생산력의 구조와 분배”라 부른 것이다(Rubin, 1973: 30). 즉, 그는 이러한 생산력의 구조와 분배가 사회 내에서 사전에 주어진 틀인 것처럼 말한다. 때문에 루빈의 설명에서는 생산력의 구조와 분배가 생산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관계까지 결정된 틀 내에서 다시 노동이 생산부문별로 할당되는 것이다. 루빈에 의하면 이는 모든 사회구성체들, 즉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들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회학적 법칙”이다. “영주와 농노들 사이의 생산관계의 총체성이 생산기술에 의해 그리고 생산의 기술적 요소들의 분배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Rubin, 1973: 29). 그렇다면 이를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해 보자. 루빈의 설명을 따르면 생산관계가 나뉘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주어진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구조와 분배가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과 기술적 수단들이 한쪽으로 편중된 채 틀을 이뤄 존재한다. 그 틀에 맞춰 생산관계가 결정, 즉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분할된다. 그런데 모든 자본가들이 동일한 물품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생산부문별로 서로 다른 기술수단과 조건들이 분배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가용한 노동력들이 상품들 간 교환관계를 매개로 하여 각자의 위치 혹은 장소들(slots)에 배분된다. 이 맥락에서 루빈의 해석은 생산력 결정론 혹은

기술결정론적 함의를 갖는다. 루빈이 이를 생산력의 구조라 부른다는 점에서 그것은 독특한 맥락의 구조결정론적 함의를 갖기도 하다.

상기한 것처럼 알튀세는 헤겔과 관련하여 루빈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가치론에 대해서는 유사한 해석을 제시한다. 즉, 알튀세에게 있어서도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노동의 사회적 분배에 대한 이론, 특히 그것의 자본주의적 사례에 대한 이론이다. 그렇다면 알튀세에게 있어 노동의 사회적 분배는 무엇에 의해 수립되는가? 『레닌과 철학』에서 알튀세는 분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계급별 소득분배와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사용가치들의 사회적 분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상품들의 교환관계이다. 알튀세에 의하면 이러한 상품들의 교환관계 이면에 또 다른 분배가 존재한다. 그것은 “생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계급들로 사람들을 분배”하는 것이다(Althusser, 1975: 167). 나아가 알튀세 역시 노동력의 생산적 지출이 물질적 조건들을 사전적으로 전제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은 자연이라는 존재를 전제한다. 이에 그는 “그러므로 물질적 메커니즘으로서 노동과정은 자연과 기술의 물리적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한다. 뒤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들에 의한 노동과정의 결정은 그 자신의 층위에서 인간 노동을 순수 창조력을 포착하려는 모든 휴머니즘적 개념에 대한 부정이다”(Althusser, 1975: 171).

여기서 다시 엘슨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해석의 내용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해석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기술주의적 독해에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재앙과도 같은 함의를 갖는다(126쪽). 엘슨은 무엇보다도 ‘사회구조’를 루빈이나 알튀세와 다르게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엘슨이 주목하는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들이다. 가령,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사회구조와 국가는 개인들의 삶의 과정에 의해 계속해서 진화한다”(129쪽에서 재인용). 이를 인용하면서 엘슨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한 사회구조가 루빈이나 알튀세의 구조와 다르다는 점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구

조와 행위성에 대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좀 더 복잡한 함의를 갖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기술 결정론, 구조결정론, 혹은 경제결정론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위에서 루빈과 알튀세는 둘 다 구조결정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만 마르크스 본인은 구조와 행위성을 둘 다 중시했다. 가령,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선택적 조건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그리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조건들 하에서 역사를 만든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이 악몽처럼 살아 있는 자들의 머리를 짓누른다(Marx, 1852/1979: 103).

그리고 사실 이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문구이다. 하지만, 이 문학적 서술은 구조와 행위성 간의 관계를 불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은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구조와 행위성이 각자의 외부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제시된 서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일단,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한다. 진화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변화’하거나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이 맥락에서 사회구조는 변동하거나(확대)재생산된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변동이나(확대)재생산의 원천은 삶의 과정으로부터 유래한다. 이 맥락에서 구조는 일상적 행위자들의 실천과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일상적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자. 필자와의 논의 과정에서 한 문화연구자는 사회구조가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건축물의 통로와 계단 등을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사회구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구조는 인간 행위의 외부에서 사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어진 틀과 같은 것이 된다. 더군다나 그 속에서 인간의 행위(움직임)가 구조(건축물의 통로)

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가 통로를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면 필자가 해석하는 마르크스의 사회구조는 산 길이다. 우리가 산을 오르거나 지날 때 우리는 기존의 길을 따른다. 그런데 우리 눈 앞의 그 길은 지금까지 그곳을 걸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분리된 채로 이해될 수 없다. 즉, 이런 식의 이해에서 구조와 행위성은 서로의 외부에서 양방향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또한, 이런 식의 이해에는 구조 변동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람들의 반복적 실천에 따라 우회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것처럼 엘슨은 사회구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에서 다룰 엘슨의 논지는 사실상 이러한 해석을 함의하고 있다. 구조와 행위성은 서로 다르며 따라서 구분가능하다. 즉,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양자 간에는 연속성 혹은 연결성이 있다. 달리 말해, 구조와 행위성은 각각이 자기경계를 명확히 가진 채 각자의 외부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¹⁵⁾

둘째, 엘슨에 의하면 루빈의 해석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노동가치론을 재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투하노동학파에게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가격(=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인자였다. 그에 반해 루빈적 해석에서는 노동시간이 교환가치의 결정인자일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가 노동시간의 결정인자이기도 하다. 즉, 교환가치들은 상품에 투하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품들로 총노동시간을 분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상품들의 시장가격에 의해 조절된다. 이에 엘슨은 이러한 해석적 전통 역시 노동가치론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즉, 그것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여전히 교환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한다. 달리 말하면, 이 해석적 전통은 노동생산물 간의 유통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통

15)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는 특히 구조와 행위성의 관계에 대한 제슈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엘슨의 책이 출판된 바로 그 해에 출판된 『자연주의의 가능성』에서 바스카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Bhaskar, 1979: 2장).

통(사회적 분배)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가치론의 확장에 불과하다(126~128쪽).

셋째,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근본적 관심은 사회적 노동분업이 아니었다. 당연히 이는 마르크스가 분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청년시절부터 마르크스는 노동과 관련하여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정치경제학이 질문하지 않은, 따라서 그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경철수고』에서 20대 중반의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추상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는 “정치경제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이다(Marx, 1844/1975, 241). 또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경제학은 …… 왜 노동이 그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재현되는지 그리고 왜 노동시간이 가치의 크기에 의해 재현되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Marx, 1869/1996: 91). 여기서 엘슨은 노동의 유동성(fluidity), 잠재성(potential) 그리고 미결정성(indeterminateness)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꿀벌이나 개미들과 달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사전에 프로그래밍되지 않았다.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인간 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것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이다(128~130쪽). 따라서 엘슨은 노동과 관련된 마르크스의 핵심 주제를 유동적이고 잠재적인 노동 그 자체, 즉 미결정적 노동의 역사적 형태결정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정(determination)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노동, 나아가 그와 관련된 여러 범주들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하는데 이는 아래의 두 절에서 행해진다.

4. 기존 해석들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이 절에서는 기존 해석들에 대한 엘슨의 방법론적 비판을 다룬다. 엘슨이 제시한 비판의 세부논지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요지는 간단하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구체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 나는 엘슨 본인이 그러한 것처럼 네 단계를 거쳐 그러한 비판을 소개한다.

1) 마르크스의 세계는 수리논리적 전체가 아니다

반복하자면 마르크스에게 구체는 다양한 것의 종합이다. 여기서 엘슨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종합이냐는 것이다. 엘슨에 의하면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것을 수리논리적 종합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들이 결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결정을 합리론적 전통 위에서 이해하고 활용해 왔다. 때문에 이들에게 결정이라는 관계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 특히 ‘이미 결정되어 사전에 주어진 독립변수’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즉 ‘아직 미결정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주한다. 달리 말해 이들에게 결정은 ‘이미 결정된 A’가 ‘아직 미결정된 B’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에 엘슨은 우리에게 생태경제학자로 알려진 조제스쿠-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의 독창적인 조어를 활용하여 결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의 일반적 특징들을 지적한다. 즉, 노동가치론자들은 세계의 현상들을 ‘산술형태적 개념들(arithmorphic concepts)’로 포착한다. 따라서 이들의 설명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지칭하는 범주들은 자기경계를 명확히 가진 채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는 수학적 혹은 논리학적 기호들로 여겨진다. 하지만,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합리론의 전통 위에서 수립된 게 아니다(130~131쪽).

엘슨에 의하면 노동가치론자들은 결정이라는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결정을 ‘이미 결정된 것’이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아직 미결정된 것’에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 ‘아직 미결정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요컨대, 그것은 결정된 A가 미결정된 B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미결정된 A가 결정된 A’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가령, 그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the potential)이 현실적인 것(the actual)으로 표출되는 과정 혹은 형태결여적인 것(the formless)이 형태부과된 것(the formed)으로 바뀌는 과정이다(129~130쪽).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엘슨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마르크스가 결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술결정론, 경제결정론 혹은 구조결정론이라고 할 때의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달리 말하면 마르크스의 결정 개념은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지 않다. 그것은 행위자의 측면에서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행위자들이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즉 그들에게 선택의 범위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129쪽). 이런 맥락에서 결정이라는 개념은 ‘선택 범위의 한정’을 함의하기도 한다.¹⁶⁾ 비근한 사례를 제시해도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현재의 노동자들 혹은 노동자계급으로 태어난 이들로 하여금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심지어 그들은 (뽀띠)부르주아가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형태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그들은 노예제나 봉건제의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도 시킬 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범죄로 간주된다. 둘째, 결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는 미결정된 것과 결정된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게

16)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제습이 자본축적과 국가를 형태결정된 사회관계(form-determined social relation)로 정의할 때의 ‘형태결정’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아니다. 물론,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동시에 그 사이에는 차이만이 아니라 연속성이 존재한다. 결정이라는 개념에 이러한 해석은 아래에서, 특히 마르크스의 범주들에 대한 엘슨의 해석을 논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마르크스의 세계는 생화학적 전체이다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구체는 생화학적 총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마르크스가 사용한 생화학적 개념들이나 비유에 대한 주목을 요청한다. 엘슨이 제시한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하면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응결, 수정(체), 신진대사, 형태전환, (대체로 화신이라 번역되는) 육화(즉, 살의 형성) 등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133, 139쪽). 또한, 마르크스가 상품을 자본주의 사회의 ‘세포’로 간주했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 엘슨이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은 방법의 문제를 다룰 때도 발견된다. 가령, 『자본』 1권의 독일어 초판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추상의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그가 추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나 논리학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미경이나 화학시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Marx, 1867/1996: 8). 이런 맥락에서 엘슨은 마르크스의 연구대상을 생화학적 총체로 해석한다.

나아가 엘슨은 앞서 논의한 결정에 대한 해석과 생화학적 구체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가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독특하게 해석한다. 엘슨에 의하면 사회적 노동시간은 가치의 크기를 수리논리적 의미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의미에서의 결정이다. 즉, 그것은 유동상태에 있는 화학적 실체(substance) — 즉, 철학에서와 달리 화학에는 ‘물질’이라 번역되기도 하는 것 — 의 양이 젤리형태 혹은 수정체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갖는 양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에서의 결정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기체나 액체 상태의 물질이 고체형태로 변화할 때 전자의 양이 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에서의 결정이다(133쪽). 이

에 대해서는 엘슨 본인의 해석을 다루는 아래에서 재론될 것이다. 여기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엘슨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구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구체성은 생화학적 전체이며,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는 범주들 사이에는 차이만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가 사용한 범주들, 가령 노동시간, 가치, 교환가치, 그리고 화폐와 같은 범주들 사이에 차이와 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엘슨은 기존의 해석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의 행태를 비판한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범주적 구분들을 여분 혹은 과잉으로 만들어버리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해석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다뤄졌던 사안이다. 엘슨에 의하면 노동가치론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치와 교환가치를 사실상 동일시하거나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가치를 노동시간과 동일시하거나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은 합리론의 전통 위에서 결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명확히 구분하는 범주들의 경우 서로 완전히 괴리된 산술형태적 개념들로 간주한다. 엘슨은 이 두 가지 행태들 모두에 비판적이다. 마르크스가 사용한 범주들, 즉 노동시간, 가치, 교환가치, 화폐와 같은 범주들에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들은 수리논리적 전체의 기호들이 아니라 생화학적 전체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서로 완전히 괴리된 채로, 자기경계를 명확히 가진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엘슨은 교환가치와 화폐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시간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 그럼으로써 (상품)가치를 유통에 앞서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교환가치와 화폐에 대해 독자적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엘슨의 해석에서 생산과 유통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영역들이 아니다. 이 맥락에서 그녀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활동가들의 해석,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는 노동생산물들이 화폐로 실현된 이후 실현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해석이나 생산영역에 종속변수를 그리

고 유통영역에 독립변수를 위치시키는 경제학자들의 해석을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엘슨은 노동시간을 독자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품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133~135쪽).

3) 따라서 노동시간을 독자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엘슨은 두 가지의 사안을 다룬다. 첫째, 노동이 끝난 그 시점, 즉 생산만 완료되고 아직 유통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가치의 척도가 되는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둘째,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엘슨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시간을 표준단위로 가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당혹스러운 주장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자.

혹자는 노동이 끝난 즉시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오늘 A는 8시간 동안 C라는 물건을 생산했고 B는 같은 시간 동안 D라는 물건을 생산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 나는 8시간 동안 노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가치의 척도가 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아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다음 절에서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할 것처럼, 마르크스는 노동에 대해 다루면서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그리고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을 구분했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A와 B가 말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유통 같은 대상을 통해 (상품)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추상노동의 지속시간이나 (상품)가치의 척도가 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중 일정 부분이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각자의 사적 노동 그리고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구체노동의 지속시간이다. 이 맥락에서 생산이 완료된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이 사적으로 수행한 구체노동의 지속시간 뿐이다. 즉, 생산이 끝난 시점에 우리는 추상노동의 지속시간이나 전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중 내가 수행한 노동이 차지한 비율에 대해 알 수 없다. 실제로 마르크스도 그렇게 주장했다. 마르크스에게 보편적 사회적 노동은 사전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창출되는 결과이다. 사회적 노동시간은 생산과정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다가 교환과정에서 표출된다(135~136쪽).

더 중요한 주장은 두 번째 것이다. 엘슨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엘슨은 척도와 측량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측량이론에서 사용되는 구분, 즉 기수적 측량가능성(cardinal measurability)과 서수적 측량가능성(ordinal measurability)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전자는 서로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측량가능성을 말하고 후자는 오직 상대적 크기만을 비교할 수 있는 측량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을 제시하면서 엘슨은 마르크스가 내재적 척도(immanent measure)와 외재적 척도(external measure)를 구분했다고 말한다. 엘슨의 의하면, 마르크스는 분명 이를 구분했지만 최소한 『자본』에서 이를 강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각종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137쪽). 엘슨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설탕 덩어리를 사례로 이를 설명한다. 여기서 ‘척도’란 어떤 것의 크기나 양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단위’를 지칭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설탕덩어리의 양을 표현하는 내재적 척도는 그것의 무게이다. 설탕덩어리는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갖는다. 여기서 무게는 설탕덩어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단위로 기능한다. 그런데 무게는 그 자체로 측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설탕덩어리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설탕덩어리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한쪽에는 그것이 올려지고 다른 한쪽에는 쇠 혹은 다른 무언가가 올려지는, 그리하여 양쪽의 무게를 맞추는, 즉 양자 간 등가의 관계를 표현하는 저울을 사용한다. 물론, 이때 활용되는 저

울의 유형이나 질량의 단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설탕덩어리의 무게는 그것과 동등한 양을 표현해 주는 매개물로서의 저울, 즉 외재적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측정된다. 이제 가치로 돌아가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한 가치척도, 즉 노동시간의 필수적 현상형태이다”(Marx, 1867/1996: 104). 여기서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을 상품가치의 내재적 척도로 간주한다. 이 맥락에서 엘슨은 노동시간을 가치의 내재적 척도로 그리고 화폐를 그것의 외재적 척도, 즉 측정을 위한 매개물로 간주한다. 이러한 해석은 리카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과도 일치한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경우 오직 노동시간만을 가치의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가치론과 화폐의 본성 사이에 그 어떤 연결고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에게는 노동시간 외에 또 다른 척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엘슨에 의하면 그것은 외재적 척도, 즉 화폐이다. 이 맥락에서 엘슨은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시간이 가치의 내재적 척도라는 주장을 ‘노동시간으로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요컨대, 설탕덩어리의 양은 그것의 내재적 척도인 무게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외재적 척도인 저울을 매개로 활용함으로써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가치의 크기는 그것의 내재적 척도인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외재적 척도인 화폐라는 매개를 활용함으로써 측정된다(137~139쪽).

그렇다면 노동시간이라는 척도는 왜 필요한가? 즉, 마르크스가 노동시간을 내재적 척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슨에 의하면 이는 기수적 측정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이다. 상기한 것처럼 기수적 측정가능성은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측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구체 노동의 지속시간들은 기수적으로 측정가능하지 않다. A가 C를 생산하는 데 투하한 노동시간과 B가 D를 생산하는 데 투하한 노동시간의 총량을 더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확정하는 게 아니다. 물론, 사회적 총노동시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도 있었다. 가령,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존 그레이(John Grey)가 그러했다. 그는 국책은행이 상품생산에 지출

된 노동시간을 파악해서 각각의 가치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장을 비판했다. 그레이가 말하는 노동시간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구체노동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구체노동은 (상품)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노동의 지속시간은 오직 서수적으로만 측정가능하다. 가령, A가 C를 만드는 데 8시간 노동했고 B가 D를 만드는 데 6시간 시간 노동했다면 A가 B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구체노동의 지속시간은 더하거나 감해지지 않는다. 한편, 조제스쿠-뢰젠에 의하면 기수적 측정가능성은 측정되는 사물의 범주가 가진 특정한 물질적 속성을 반영하기도 한다(137쪽).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바로 이 때문에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가치의 내재적 척도로 활용했다. 즉, (상품)가치나 교환가치는 기수적으로 측정가능하다. 그것은 더하거나 감해질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기수적으로 측정가능하려면 그 범주는 그 속에서 내재한 특수한 물질적 성질을 반영해야 한다. 엘슨에 따르면, 내재적 척도는 바로 이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녀에 의하면 상품의 기수적 측정가능성은 인간 에너지(특히, 노력과 수고)의 지출이라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고, 내재적 척도로서의 노동시간은 바로 이를 포착하기 위한 범주이다.

4) 역사유물론의 방법과 형태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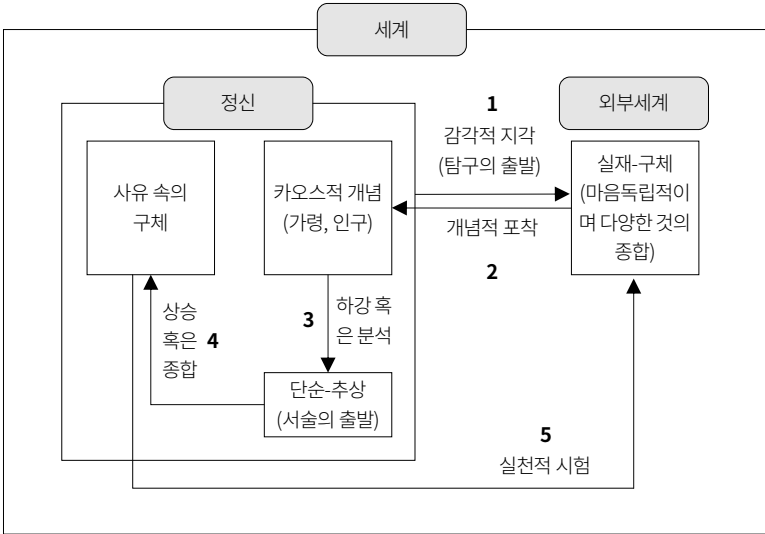
하지만, 범주들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순환논증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엘슨에 의하면, 만약 마르크스의 구체성이 수리논리적 총체라면 그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합리론자가 아니다. 이 맥락에서 엘슨은 사적 유물론과 정치경제학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 논의를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스의 연구는 역사과학이다. 둘째, 마르크스는 역사적 과정을 사회형태들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했다. 셋째, 그러한 형태들은 응결되었다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융해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 넷째, 이 맥락에서 역사적 과정은 따로따로 구분되는 형태들의 순차적 연결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체이다. 다섯째, 수리논리적 접근은 정적 구조에 대한 규명에 적합하지만 이런 유형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질적 변화를 과정이 아니라 구조들 사이의 갑작스러운 단절 혹은 양자도약으로 간주한다. 여섯째,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논리가 필요하다. 일곱째,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는 대상의 외부에서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다(139~141쪽)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과 관련하여 엘슨이 설명하는 것은 『경철수고』 그리고 대체로 ‘1857년 서론’에 나오는 정치경제학의 방법에 대한 해설이다(141~144쪽). 이를 위해 엘슨은 마르크스의 문헌들을 조각조각 인용하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나는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한 그녀의 난삽한 설명을 나 자신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나의 설명은 엘슨의 이해를 포괄하는 것인 동시에 그 이상의 사안들을 좀 더 명료히 다룬다.

먼저 방법론(methodology)과 방법(method)에 대한 용어에서 시작하자. 오늘날 우리는 방법론과 방법을 상호 대체가능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법론은 방법에 대한 이론을 지칭하고 방법은 대체로 연구기법들, 가령 수학적 모델링, 통계, 여러 종류의 인터뷰, 참여관찰, 에스노그래피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방법이라는 말의 일차적 의미는 절차(procedure)이기도 하다. 이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논하면서 다룬 것도 연구기법이 아니라 절차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탐구방법과 서술방법, 즉 탐구절차와 서술절차를 구분했다(Marx, 1873/1996: 18~19). 때문에 오늘날 그의 방법은 흔히 ‘추상에서 구체로’라는 말로 축약되지만 이는 오직 부분적에만 타당하다. 그것은 서술의 절차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합쳐서 “하나의 예술적 총체(artistic whole)”을 이루는 그의 두 방법들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Marx, 1865/1987: 173).

이에 대한 설명, 특히 마르크스의 탐구방법에 대한 설명은 그가 ‘실재-구체(the

<그림 1> 마르크스의 탐구방법과 서술방법



출처: 필자 구성.

real-concrete)’라 칭한 대상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반복하자면 구체는 다양한 것의 종합이다. 실재는 외부 세계의 마음독립성(mind-independence)을 지칭한다.¹⁷⁾ 마음독립성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혹은 우리가 그것을

17)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마음독립성이라는 표현이 로이 바스카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바스카가 그리고 적지 않은 비판적 실재론자들이 마르크스를 (비판적) 실재론의 선구자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만 마음독립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바스카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마르크스 역시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세계’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한정적 사회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가령, 「1857년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우리가 순수하게 사변적인, 순수히 이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는 한”, 즉 우리가 그러한 이론적 대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사유하는 정신의 산물인 개념적 총체가 대상으로 하는 “실재 주제는 우리의 마음 외부에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남아 있다”고 기술했다(Marx, 1857/1987: 38). 또한, 「1859년 서문」에서 그는 인간이 한정적 사회관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사회관계들이 인간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썼다(Marx, 1859/1987: 263). 즉, 그는 오늘날 넓은 의미의 과학적 실재론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마음독립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표현들을 사

알고 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의 실재에 대한 승인, 즉 실재론은 관념론과 반대이다. 여기서 외부세계(outer world)의 마음독립성을 승인하더라도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외부세계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론 혹은 경험적 실재론으로 간주된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심층)실재론이라 불린다. 마르크스는 후자에 속한다. 그는 현상형태의 이면에 내적 영역이 있다는 점을 승인했다. 또한 그러한 내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과성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Marx, 1867/1987: 390; 1868/1988: 232; 1873/1996: 19). 위에서 언급한 케틀레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케틀레는 현상의 수준에서 몇몇 규칙성을 적절히 발견했고 이를 통해 심지어 예측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규칙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성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탐구는 지각(perception), 즉 오감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전체상을 상을 획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어서 사유 속에서의 착상 혹은 개념(conception)의 포착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렇게 최초 획득된 개념은 카오스적(chaotic)이다. 즉, 그것은 그 내부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때문에 헤겔의 표현을 차용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참인 지식인 동시에 말해주는 게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일면적이며 빈약한 지식이기도 하다(Hegel, 1807/1977: 59). 여기서부터 분석,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분석 이상의 작업이 수행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실재론이라 명명하기보다 유물론(materialism)이라 칭했다. 한편, 엥겔스 역시 “자연은 모든 철학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입장을 수용하느냐 아니냐를 관념론과 유물론의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Engels, 1888/1990: 364).

‘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상용어에서 분석은 세세한 검토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분석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논증의 출발점을 발견한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분석은 주어진 기하학적 문제나 잠정적 결론이 옳다는 가정 하에 논증의 출발점을 발굴한다는 의미였다. 반대로 종합은 그러한 분석이 옳다는 전제하에, 즉 증명의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진술이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지칭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분석과 종합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간단히 말하면 미적분의 체계를 창출한 라이프니츠에 의해 분석은 분할(decomposition)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미세하게 차등화(differentiate, 즉 미분)하는 것이다. 반대로 종합은 나뉜진 것을 통합(integrate, 즉 적분)하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선제조건 혹은 사전적 가정(presupposition)의 발굴이다. 이는 가정(supposition)에 앞선 가정을 말한다. 가령, 지금 내 눈앞에 가정과 증명 그리고 결론이 있다고 하자. 선제조건은 그렇게 내 눈 앞에 없지만 그러한 논변이 성립가능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선제조건을 발굴하기 위한 질문은 선험적 혹은 초월적(transcendental) 질문하기로 간주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질문은 흔히 선험철학으로 간주되는 칸트의 철학에서 중시된다. 마르크스의 탐구절차에서 흔히 ‘하강’으로 간주되는 과정은 이 모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카오스적 개념의 사례는, 주로 17세기 경제학자들이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인구’였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인구를 계급들로 분할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급들이 존재하기 위한 선제조건들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발굴한다. 이 과정의 끝에서 그는 가장 단순한 추상화, 즉 서술의 출발점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다시 상승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카오스적 개념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사유 속의 구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승이 바로 서술의 과정이며 흔히 ‘추상에서 구체로’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구체, 즉 마음독립적 구체는 ‘사유 속의 구체’로 재현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사유 속의

구체와 마음독립적 구체가 일치하느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공리공론적 문제에 불과하다.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론과 실재의 일치를 보장해 주는 또 다른 메타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실재 세계에서 실천을 통해 시험되어야 한다. 한편, 마르크스에 의하면 정치경제학자들은 지각에서 출발해서 단순-추상의 영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몇 가지의 일반적인 관계들을 발견하는 데 그친다. 사유 속에서의 상승 운동, 즉 구체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강조한 이들은 헤겔주의자들이다. 때때로 예지력이라 번역되는 위트(wit), 즉 언어를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종합적 사고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는 ‘못 배운 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헤겔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유 속에서의 운동이 실재세계의 운동을 야기한다는 환상에 빠졌다(정치경제학의 방법에 대해서는 Marx, 1857/1996, 37~38; 이론과 실재의 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Marx, 1845/1975: 3~4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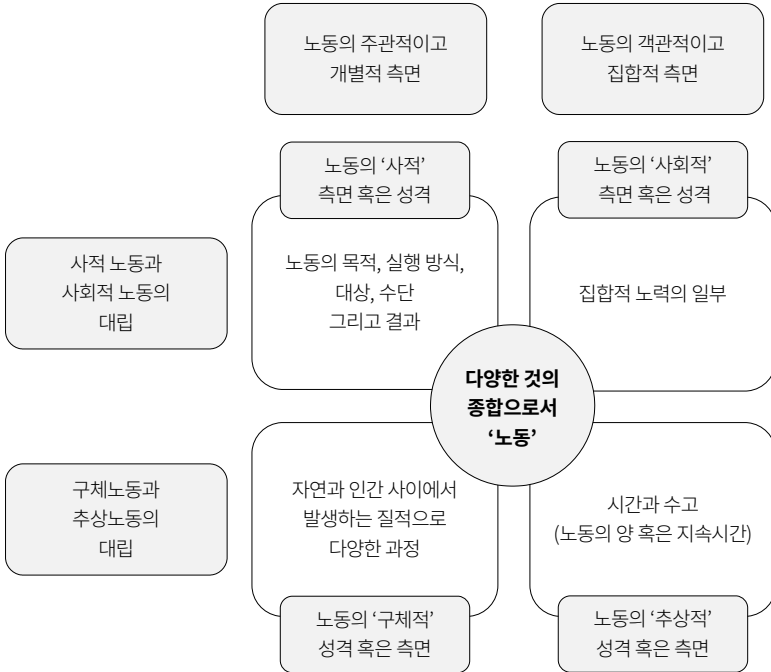
5.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이론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엘슨 본인의 해석, 즉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이론과 이 해석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작업 역시 네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1) 노동과 관련된 범주들

엘슨의 출발점은 노동에 대해 마르크스가 사용한 범주들이다. 반복하자면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대립쌍을 활용했다. 하나는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이분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의 이분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추상노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거론한 바 있다. 엘슨은 이에 대해서도 매우 독특한, 그렇기 때문에 상

<그림 2> 노동의 단면을 포착하는 범주들



출처: 필자 구성.

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해석을 제시한다. 마르크스가 사용한 노동의 범주들에 대한 엘슨의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이 범주들은 노동의 유형들(types)이 아니라 단면들(aspects)를 지칭한다(144, 147쪽). 이 주장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위 범주들이 모두 추상적인, 즉 일면적인 범주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엘슨에 의하면 '다양한 것의 종합'에 해당하는 범주는 '구체노동'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이다. 위의 네 범주들은 모두 '노동'의 '일면적 추상'에 불과하다. 즉, 추상노동은 구체노동으로부터의 추상화를 통해 획득된 노동 일반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을 '노동의 이중적 성격'으로 간주했다(Marx, 1867/1996). 즉, 둘 다 노동의 단면을 지칭하기 위한 범주들일 뿐이다. 네 범주들에 대한 엘슨의 이해는 <그림 2>처럼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사적 노동과 구체노동, 즉 노동의 사적 성격과 구체적 성격은 노동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사적 노동은 노동의 목적, 실행방식, 대상, 수단 그리고 결과와 관련된 범주이다. 구체노동은 특히 노동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적으로 다양한 과정임을 포착하기 위한 범주이다. 즉, 그것은 노동의 자연의존성과 이질성을 드러낸다. 또한, 노동의 성격을 가운데 그것은 사용가치를 창출한다. 그에 반해 사회적 노동과 추상노동, 즉 노동의 사회적 성격과 추상적 성격은 노동의 객관적이고 집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노동은 노동이 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집합적 수고의 일부임을, 사회적 분업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추상노동은 노동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측면들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에는 시간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일면적 범주이다. 따라서 그것은 노동의 양 그리고 지속시간을 드러낸다. 이 맥락에서 엘슨은 생산과정에서 사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이 교환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노동으로 변형된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엘슨에 의하면 어떤 노동은 사적이고 다른 노동은 사회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은 구체적이고 다른 노동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엘슨에 따르면 노동은 언제나 위의 네 범주들이 지칭하는 단면들을 동시에 지닌다(145~147쪽).

둘째, 따라서 엘슨에게 이 네 범주들은 모든 역사적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종별성을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특히 루빈적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추상노동’이 그러한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한다. 이들에게 추상노동을 몰역사적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에 반해 엘슨은 추상노동을 몰역사적 범주로 취급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5, 148쪽).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사안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결정이라는 개념, 특히 형태결정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앞 절에서는 나는 엘슨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미결정된 것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형태결여적인 것이 형태부과된 것으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안은 청년 시절부터 마르크스를

사로잡았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의 내용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엘슨의 비판을 다루는 절에서 설명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하면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를 인간의 특징을 적절히 포착한 것이라 평가하며 프랭클린을 인용한다(Marx, 1867/1996: 189, 331). 즉, 프랭클린과 마르크스가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인간은 ‘호모 파베르(Homo Faber)’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철수고』에서 『독일 이데올로기』를 거쳐 『자본』에서도 발견되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 그러나 정치경제학자들은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사안, 때문에 정치경제학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마르크스의 문제설정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 둘을 종합하여 엘슨은 마르크스의 시기구분이 노동형태의 역사적 결정과 변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위의 네 범주들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해당하는 미결정적 노동의 ‘잠재태(potentia)’이다.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조직화되는가는, 즉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응결되는가는 역사적으로 상이하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노동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구체노동과 좀 더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의 질적 다양성이 그것의 목적이나 실행방식 등에 대한 개인적 혹은 사적 선택과 결부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그러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언급한 것처럼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사회에서 노동의 질적 특수성은 즉각적으로 사회적 형태를 취한다. 즉,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노예나 농노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목적과 실행방식, 대상 그리고 수단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임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추상노동은 노동의 한 유형이 아닐 뿐더러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만 추상노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엘슨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 네 범주들 가운데 추상노동이 노동의 다른 성격들을 지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사회에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그것의 추상적 성격의 재현을 통해 수립된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

의 사회적 성격은 총노동시간의 일정 비율로 파악된다. 즉, 각자가 사적으로 수행하는 이질적 노동들(즉, 사적 노동과 구체노동)도 — 상품들은 교환관계를 통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 추상노동에 의해 매개된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의 범주들과 관련하여 엘슨이 주장하는 세 번째의 주장을 언급할 수 있다.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구체노동과 사적 노동을 그리고 추상노동을 사회적 노동과 동일시 하지만 엘슨에 의하면 이들은 구분된다는 것이다(145~149쪽). 이러한 추상노동의 지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될 것이다.

2) 마르크스의 가치론에서 ‘분석’의 국면

이상의 설명에 기반하여 엘슨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서 ‘분석’에 해당하는 국면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자본』 1권의 1장에 등장하는 설명 중 상품에서 가치로 이동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두 가지가 문제시된다. 하나는 교환과정에서 상품들을 등가로 취급하는 설명, 나아가 그러한 등가관계에서 동일한 크기를 갖는 공통의 요소, 즉 (상품)가치라는 범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이 공통적 요소의 실체가 추상노동의 대상화라는 주장이다(151쪽). 엘슨은 처음부터 자신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녀는 등가, 가치 그리고 추상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판들과 의문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한다. 엘슨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논의는 등가 없는 교환의 가능성이다. 가령, 흑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교환당사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때문에 심지어 교환되는 물품들이 등가일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등가관계에서 도달된 가치라는 범주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해 엘슨은 두 가지의 근거를 들며 반박한다. 첫째, 크리스마스 선물교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등가가 아닌 물품들을 당사자들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교환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논하는 교환은 이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의한 것이다. 둘째, 상품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

의는 자본주의적 상품 교환을 전제로 한다. 즉, 그것은 물역사적 교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두 당사자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가 논의하는 교환은 ‘일반적 교환가능성’을 전제로 한다(152~153 쪽). 여기서 엘슨이 세계시장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노동분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언급한 세계시장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 즉, 상품의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이 수준에서의 교환을 전제로 한 것이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교환을 말한다. 그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스케일에서 반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교환이다. 엘슨은 이를 일반적 교환가능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에 엘슨은 일반적 수준의 교환가능성을 전제로 한 교환과 등가관계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결심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님을 강조한다. 여기서 상품들 간 교환비율은 교환당사자들의 주관적 결심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타 모든 교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가형성의 과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만 한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기도 하다(153쪽).

물론, 마르크스만 이런 스케일의 교환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엘슨은 두 번째의 사안에 대해 다룬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하나의 상품을 뉘메레어(numeraire), 즉 여타 모든 상품들의 상대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상품으로 설정하면 가치라는 범주가 없어도 교환과 등가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러한 접근법은 화폐라는 상품이 뉘메레어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좀 더 잘 부합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도 엘슨은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첫째,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교환비율들 혹은 등가관계를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간주했다. 그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스케일의 시장에서 반복적이고도 경쟁적인 선택들을 통해 출현한 결과이다. 그에 반해 뉘메레르 접근법을 택할 경우 우리는 등가관계를 사전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둘째, 마르크스에 의하면 화폐는 교환의 과정에서 그 내부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뉘메레르 접근법을 택할 경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교환이 가능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153~154쪽). 엘슨에 의하면, 스라파주의자들과 현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우회하지만 초기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혹은 한계효용학파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했다. 이들에 의하면 상품은 그것이 산출하는 효용 혹은 만족 때문에 교환된다. 즉,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등가교환은 상품에 내재한 두 요소들 가운데 (상품)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엘슨의 논평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설명은 질적으로 상이한 사용가치들에 대해 질적으로 상이한 욕구들을 공통적인 것으로, 즉 효용으로 환원한다. 이는 그러한 효용의 기수적 측정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격이론에 그 잔여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20세기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폐기되었다. 둘째, 통념과 달리 마르크스도 사용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용가치를 중시한 것은 그것들 간의 양적 등가가 아니라 질적 차이와 관련해서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교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다. 마르크스 본인이 서술한 것처럼, 상품들은 스스로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품소유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필요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 거래된다. 넷째,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러한 교환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상기한 것처럼, 교환과정에는 상품소유자들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 존재한다(155~156쪽).

요컨대,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교환과 관련하여 그것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성격도 동시에 포착하려 했다. 즉, 마르크스는 부분적으로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교환의 성격을 동시에 포착하려 했다. 이를 수행하려면 가치라는 범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는 상품의 등가를 극도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즉 실체적 등가로 취급했다. 이후 엘슨은 이 ‘실체’라는 단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엘슨에 의하면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더군다나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전에 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두 가지

의 오해를 낳았다고 말한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논의를 몰역사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독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체를 철학적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논의를 관념론적으로, 즉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가치라는 범주의 자기진군에 대한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설명이 몰역사적이지 않다는 점, 즉 그것이 자본주의 상품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했다. 또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해석에 대한 엘슨의 방법론적 논의를 설명하면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즉, 엘슨은 마르크스가 말한 실체를 생화학적 실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상품들을 실체적 등가물들로 다룰 때 실체는 '절대적 독립물'로서의 철학적, 관념론적 실체가 아니라 생화학적 실체—가령, 빛과 열을 실체적으로 동일한 서로 다른 형태들로 취급하는 것처럼, 즉 자기활성적 물질로서의 에너지가 취하는 서로 다른 형태들로 다루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생화학적 실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엘슨은 실체적 등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관념론적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물론, 엘슨에 의하면 에너지 형태들의 상호 대체가능성과 상품들의 상호 대체가능성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실체는 자연적인 에너지이다. 후자의 경우 그 실체는 인간 에너지이다.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교환이 비인간적 원천이나 구조 혹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이뤄진다는 설명에 대해 반대했다. 물론,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처럼 교환은 물리적 대상들로서의 상품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품들 간의 등가는 본질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가치의 실체는 인간의 자기활동성 그리고 인간 에너지이다. 그런데 가치로서 상품의 사회적 실체는 인간 노동 그 자체가 아니다. 인간 노동은 이중적 본성을 갖는다. 그중 가치로서, 즉 실체적 등가로서 상품은 노동의 추상적 측면의 대상화와 연계된다(157~159쪽). 가치라는 범주는 바로 이를 포착하는 데 필요하다.

3) 마르크스 가치론에서 ‘종합’의 국면

하지만, 상품에서 가치로 이동하는 분석의 국면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일면에 불과하다. 여기서 엘슨은 가치론의 종합에 해당하는 국면, 즉 『자본』 1권 1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 국면은 가치에서 가격으로 이동하는 국면으로 간주된다. 엘슨에 의하면 여기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크게 세 가지 사안을 다룬다. 첫째는 추상노동의 대상화가 발생하는 조건과 과정이며, 둘째는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추상노동의 지배이고, 셋째는 이 대상화의 불안정한 본성이다. 한편, 엘슨은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추상노동이 대상화되는 과정의 ‘법칙’을 의미하는 ‘가치법칙’”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한다(161쪽).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하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법칙’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이다. 이 지점에서 엘슨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마르크스의 법칙을 추상적 법칙이 아니라 경향성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가치법칙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이다. 엘슨에 의하면 가치법칙은 종종 가치와 가격의 관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추상노동의 대상화가 가격형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추상노동의 대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한 설명이다(161쪽).

마르크스에 의하면, 추상노동의 대상화는 하나의 상품(가령, 린넨)에 체화된 추상노동이 ‘객관적으로(대상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린넨에 투하된 노동의 추상적 측면이 ① 린넨과 소재적으로 다른 사물로서, 동시에 ② 다른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물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상품이 가치의 담지물로 기능할 때, 또한 그것이 그것과 교환되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반영할 때 가능해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가치형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치의 담지물은 ‘등가형태’라 불린다. 그 가치가 반영되는 상품은 ‘상대적 형태’이다. 등가형태는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해야만 한다. 어떤 것이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갖는다는 말은 그것이 자신의 사용가치와 관계없이 교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가치

의 담지물로서 기능하는 어떤 상품은 그것의 사용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것에 투하된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노동 때문에 교환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환된다. 그러한 사회적 지위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상업사회 공동의 기여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한 직접적 교환가능성은 그 등가형태가 보편적 등가물이 될 때까지 태아적 형태로만 존재한다. 보편적 등가물이란 여타의 모든 상품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완전한 실현은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즉, 어떤 것이 '유일한' 보편적 등가물이 되었을 때 등가형태의 직접적 교환가능성이 완전히 실현된다. 요컨대, 가치의 담지물로 기능하는 어떤 상품이 유일한 보편적 등가물이 되었을 때 사용가치와 상관없이 교환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논하면서 마르크스가 주목했던 사례는 금·화폐였다. 이에 엘슨은 추상노동의 대상화가 보편적 등가물로서의 화폐 혹은 가치의 화폐형태를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162~163쪽).

나아가 추상노동은 보편적 등가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지배적인 측면이 된다. 위에서 나는 노동과 관련하여 마르크스가 사용한 네 범주들에 대한 엘슨의 주장을 소개했다. 엘슨에 의하면 그것은 노동의 단면들이다. 따라서 어떤 노동은 사회적이고 다른 노동은 사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은 구체적이고 다른 노동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보편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에도 노동의 네 측면들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은 그것의 사용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게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한 번에 그것이 보편적 등가물임을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다. 노동의 사적 측면은 그러한 보편적 등가물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 즉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도 추상노동의 육화 혹은 화신으로만 기능하는 상품 생산을 본질로 할 뿐이다. 요컨대, 추상노동은 보편적 등가물을 통해 구현되고 그러한 보편적 등가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 노동의 다른 성격들은 바로 이러한 추상노동의 표현을 위해 복무할 뿐이다. 엘슨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별적인 노동의 형태결정, 즉 추상노동의 지배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한편, 엘슨에 따르면 『자본』 1권은 ① 추상노동의 지배만이 아니라 ② 다른 상품들에 대한 보편적 등가물의 지배, 즉 모든 상품들에 대해 가치의 화폐형태가 취하는 지배, 나아가 ③ 그러한 가치의 화폐형태가 취하는 지배가 가치의 자본형태, 즉 화폐형태의 자기팽창으로 표현되는가를 보여준다(165쪽). 이 맥락에서 엘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추상노동의 지배는 인간이 생산과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정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구성체를 암시한다. 마르크스에게는 화폐와 자본이 이러한 지배의 두 가지 형태이다. 가치론은 이러한 결론을 위한 토대이다”(150쪽).

또한, 그녀는 이러한 해석이 가치와 가격, 즉 화폐형태로 표현되는 교환가치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진술들과 부합한다고 말한다. 그녀에 의하면, 가치와 가격에 대해 마르크스는 규정한다(regulat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즉, 가치가 가격을 규정한다. 그런데 엘슨에 의하면 이 말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갖는 내적 특성이 현상의 수준에서 그것의 재현을 규정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가령, 그것은 “화학적 실체의 분자 구조가 그것의 크리스탈 형태의 재현을 규정”하는 경우나 “살아 있는 유기체의 세포구조가 그 유기체의 신체 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가깝다. 다만, 여기서 엘슨은 그러한 규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166~167쪽). 끝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의 1권 3장에서 그러한 관계의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기한 것처럼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추상적 측면이 대상화되기 위해 상품은 가격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가격은 상품 가치의 크기만이 아니라 화폐량의 크고 적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격과 화폐크기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즉 가격이 가치 크기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은 가격형태 자체에 내재해 있다. 이에 엘슨은 보편적 등가물로서의 화폐는 추상노동의 대상화에 있어 필요

조건일 뿐이며, 화폐의 유통은 상품생산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화폐의 유통은 상품생산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즉, 화폐는 여타 상품들과 달리 다른 모든 상품들과 아무 때나 교환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상품으로서의 화폐가 갖는 가치의 크기는 미결정적이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의 크기를 독자적으로 반영하는 별도의 보편적 등가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폐의 미결정성과 상대적 자율성은 생산과 유통이 그리고 판매와 구매가 불균형을 이룰 가능성을 담고 있다. 엘슨이 의하면, 실제로 마르크스는 상품생산에 대해 화폐의 유통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이 결정적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점을, 즉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자본』의 1권 3장에서 마르크스는 그러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지적한다. 즉, 그는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말한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엘슨은 『자본』 1권이 대체로 균형과 가치법칙의 관철을 전제하고 썼지만 불균형과 위기를 함의하고 있는 논의라 평가한다(169~171쪽).

4) 정치적 함의

이제 우리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엘슨의 해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극도로 단순화시키는 일부 활동가들을 제외하면 그 이론은 대체로 가격에 대한 이론이나 노동의 사회적 배분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된다. 그에 반해 엘슨에 의하면 그 이론은 미결정적 노동의 자본주의적 형태결정에 대한 이론이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가 보여주는 것은 ① 노동의 여타 성격들 혹은 측면들에 대한 추상노동의 지배, ② 나아가 그러한 추상노동의 지배가 일어나는 과정, 즉 추상노동의 대상화가 가치형태, 특히 가치의 화폐형태를 통해 이뤄지는 과정, 나아가 ③ 이러한 과정에 내재한 불안정성 혹은 위기가능성 등이다. 이는 화폐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구성체, 즉 인간이 생산과정에 복속되는 사회구성체와 그 위기경향성에 대한 설명

의 토대가 된다. 물론, 엘슨에게 그러한 사회형태는 응고된 혹은 수정체화된 것인 동시에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역사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체이며 그러한 형태변화의 동력은 그것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슨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다. 그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착취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다시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해석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착취의 증명을 위한 이론이다. 하지만, 엘슨에 의하면 착취의 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즉, 착취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피착취자들에게 착취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이미 체험을 통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달리 말해, 이들에게는 착취의 증명이 아니라 착취의 작동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해석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피착취자들은 오직 파편적인 방식으로만 그것을 경험한다. 엘슨에 의하면,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것은 화폐관계와 노동과정의 관계들을 분리불가능한 것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취에 대한 분절적 경험들을 극복하게 해준다. 또한, 그것은 피착취자들의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엘슨은 화폐와 관련된 정치를 ‘유통의 정치’ 그리고 생산과정과 관련된 정치를 ‘생산의 정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저항은 이 둘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자는 화폐, 임금, 금융, 투자, 재정 등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생산현장에서의 노동과정이나 작업조건 등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유통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치 역시 양자택일이나 서로 분리된 채 진

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함의를 제공하기도 한다(171~172쪽).

둘째,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자본주의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위기가능성을 강조한다. 물론, 『자본』의 1권 1편에서 마르크스는 위기(공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엘슨의 해석에 따르면 정치경제학 비판의 토대가 되는 가치론에도 위기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자본』 1권의 3장에서 그에 대해 서술했다. 한편, 이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작동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의 자본주의적 착취는 폐쇄적 체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과정 중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그에 따라 착취와 지배의 방식도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그 역동적 과정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공간이 어디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172~173쪽).

이는 화폐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구성체, 즉 인간이 생산과정에 복속되는 사회구성체와 그 위기경향성에 대한 설명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엘슨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치적 실천의 출현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기이한 방식으로 취급해 왔음을 지적한다. 자본주의를 고정된 지배구조나 정치경제적 모델로 간주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닫힌 체계로 간주한다. 동시에 이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곤 한다. 이렇게 되면 저항운동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즉 극의 전개과정에서 갑자기 출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나 장치와 같다. 또한, 자본주의와 저항운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역사적 변화를 질적으로 다른 연속체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닫힌 체계들 사이의 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엘슨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일면성을 지적한다. 엘슨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개인들을 가치형태의 담지자로 환원하는 것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즉, 마르크스 본인도 그것이 오직 절반의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엘슨은 여기서 다시 노동의 범주들이 노동의 일면들에 불과함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는 노동의 추상적인 성격이 지배적임을 언급한다. 하지만 추상노동의 지배 혹은 추상노동으로의 복속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여타 측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적이고 구체적이며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노동형태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 저항운동의 가능성이 있다(173~174쪽).

6. 추가적인 함의들,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밥 제습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엘슨의 해석이 갖는 추가적인 함의와 그 해석이 하비와 제습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약술한다. 일단 엘슨의 해석이 갖는 한 가지의 함의는 이 글의 전반부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은 노동가치론의 위기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함의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분과학문적 성격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을 경제학으로 간주한다. 만약 마르크스의 이론이 일차적으로 유통영역의 변수를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엘슨의 해석을 따르면 정치경제학 비판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마르크스는 현대적 분과학문체계가 수립되기 이전의 이론가이기도 하다.¹⁸⁾ 세 번째는 『자본』이라는 저술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한 해석이다. 상기한 것처럼, 엘슨의 글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일면성을 지적하면서 끝을 맺는다. 결국 그녀는 매우 장문의 글을 통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나아가 『자본』을 옹호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글을 맺는다. 실제로 그녀는

18) 이 맥락에서 제습은 정치경제학 비판을 ‘전분과학문적(pre-disciplinary)’이라 묘사한다 (Sum and Jessop, 2013: 10). 한편, 르페브르 역시 르페브르 역시 유사한 견해를 취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경제학 비판은 전문화 혹은 전공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Lefebvre, 1973/2016: 93).

이 글의 출판 이후 자신의 해석에 기반하여 페미니스트 경제학과 관련된 작업을 했지만,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일방적 옹호가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주목한 한계는 마르크스가 젠더화된 노동 그리고 인종화된 노동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녀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노동의 자본주의적 형태결정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을 젠더나 인종과 연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맥락에서 이후 그녀는 주로 여성노동, 나아가 제3세계 여성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자본의 일면성과 관련해서는 하비와 제스도 엘슨과 유사한 견해를 취한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플랜논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서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850년대 말 마르크스는 ‘여섯 권 계획’을 구상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① 자본에서 시작해서 ② 토지/시대, ③ 임노동, ④ 국가, ⑤ 해외무역, 그리고 ⑥ 세계시장과 위기로 이어지는 출판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1860년대 초에 이르면 ‘4권 계획’, 즉 『자본』에 해당하는 세 권과 잉여가치학설사를 다루는 책으로 제시된다. 물론, 이 가운데 마르크스가 살아 있을 때 출판된 것은 『자본』 1권의 제2판까지이다. 이에 『자본』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은 출판된 『자본』 3권의 완결성을 강조한다. 다른 이들은 후반의 작업, 특히 세계시장에 대한 저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들은 출판된 『자본』이 전체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에서 매우 한정된 부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택한다. 그런데 엘슨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가운데 세 번째 입장에 좀 더 친화적이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하비의 주저 중 하나는 그 제목부터가 『자본의 한계』이다. 한편, 제스도 『자본의 한계』만이 아니라 마이클 레보위츠의 『자본론을 넘어』라는 책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다. 레보위츠가 엘슨의 해석에 기반하여 『자본론을 넘어』라는 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핵심 주장도 『자본(론)』의 일면성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특히 임노동에 대한 별도의 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제스는 마르크스의 최초 플랜에서 4권에 해당하는 작업, 즉

국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제습은 흔히 국가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분석한 국가는 국가 일반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그중에서도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본주의적 유형의 국가이다. 실제로 그의 초기 이론은 일차적으로 영국과 서독(오늘날에는 독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비록 충분히 발전된 것들은 아니지만 신제국주의에 대한 하비의 분석이나 세계 시장과 얼룩덜룩한 자본주의, 그리고 위기에 대한 제습의 작업은 마르크스의 최초 플랜에서 좀 더 후반부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지대에서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제관계와 세계시장 그리고 위기 등으로 이동한 것이다. 실제로 하비는 1982년 출판된 『자본의 한계』에서부터 엘슨의 해석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엘슨(Elson, 1979)은 최근 엄정한 과학과 정치의 통합체라는 점에서 맑스의 가치론에 있어 그 혁명적 측면들을 고찰한 일단의 흥미로운 논문들을 편집했다(그리고 그녀 자신의 극히 통찰력 있는 논문을 첨가했다). 나는 이 주장들에 매우 공감하며, 나 자신의 저작을 엘슨과 여타 학자들이 정의하기 시작한 노선을 따르는 시론적 논술로서 간주한다. …… 맑스는 어떤 상대가격이론을 만들거나 또는 사회적 생산물분배의 고정된 규칙들을 설정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두었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가?(하비, 1995: 66)

여기서 하비는 투하노동학파와 추상노동학파의 해석들을 거부하고 엘슨의 해석을 수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비에 대한 몇몇 평가들은 매우 부당하다. 가령, 이정구(2016: 112)는 하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노동가치설까지도 기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하비의 방법론이 마르크스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가치와 가격 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재현함으로써 마르크스를 수리경제학자의 원형으로 제시하거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tendential fall)를 저하 경향(falling trend)로 이해한 후 그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마르크스를 계량경제학자의 원형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하비는 “노동가치설까지도 기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마르크스와 하비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사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비가 마르크스가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고 노동가치론을 기각하며 이윤율 저하 법칙의 경향성까지도 반대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일 수 있는가? 실상은 위의 비판과 상당히 다르다. 하비는 노동가치론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엘슨을 따라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노동가치론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1982년 이후 하비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거부”라는 노트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서론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해석적 전통의 기원이 엘슨임을 밝힌다(Harvey, 2018).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에 대한 하비의 해설서나 그 자신의 이론적 작업을 독해할 때, 특히 가치에 대한 그의 서술을 접할 때 어떤 해석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습의 사회이론과 국가론도 사실은 엘슨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일단 제습의 초기 문제의식에 대해 개괄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제습의 첫 번째 단행본은 1982년에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 제습은 서독의 국가도출론자들의 자본중심적 접근법, 즉 국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자본이론적 분석과 네오그람시안들의 계급중심적 접근, 즉 정세분석적 접근 간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경제논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사회 세력들 간 힘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국가들을 중범위적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이론의 출현에 대한 요청이었다(Jessop, 1982). 이후 제습은 이러한 가능성의 단서를 폴란차스의 마지막 저서에서 발견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폴란차스는 국가를 사회적 관계로 정의했다. 이는 마

르크스가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정의한 것에서 유래한다. 1985년 출판된 『플란차스를 읽자(Nicos Poulantzas)』에서 제습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이 사회적 관계라는 말은 자본축적이 형태결정된 사회적 관계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적 관계라는 말 역시 국가가 형태결정된 사회적 관계라는 말이다(Jessop, 1985). 여기서 제습에게 형태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 혹은 형태, 즉 본질로서의 종차(differentia specifica)가 아니다. 그것은 실체적 내용(substantial content)의 조직화 양식을 말한다(Jessop 2007). 즉, 그것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때 인간적 본질로서의 ‘이성’과 같은 게 아니라 2교대 혹은 3교대 등의 근무형태 혹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라고 말할 때처럼 내용이 조직화되는 방식이나 패턴을 지칭한다. 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은 미결정된 것이 결정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행위자들의 선택이 불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이 말은 국가를 조직화하는 방식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한 범위의 한정은 자본주의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영향은 국가의 조직화 방식이나 국가권력이 활용되는 방식의 특정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만 한정한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특정 지점은 사회세력들 간 힘의 역관계에 의해 설정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형태와 기능을 자본논리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고려한 형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동시에 국가를 논하면서 정치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사회세력들 간 힘의 역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자본논리 일반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성격을 도출하려는 시도나 사건사적 혹은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을 다루는 정세분석 사이에서 중범위적 국가분석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때문에 이는 이후 제습이 좀 더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국가론, 나아가 조절주의적 국가론의 핵심적인 명제로 기능한다(가령, Jessop, 1990; 2002를 보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엘슨의 해석은 제습의 국가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제습은 사회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형태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성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Jessop, 2007).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제습은 형태분석(form-analysis) 혹은 형태분석적(form-analytic)처럼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 때문에 이는 간혹 제습의 분석이 마치 형식적 분석(formal analysis)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제습이 말하는 것은 엘슨이 형태결정에 대한 분석(an analysis of form-determination)이라 불렀던 것이다. 즉, 그것은 엘슨이 역사유물론의 방법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습이 형태분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역사적 유물론을 전제로 한 것이 된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역사기술학, 특히 시기구분에 대한 제습의 관점에도 반영되어 있다(Jessop, 2012). 한편, 제습은 사회구성체라는 개념도 독특하게 이해한다. 그는 사회구성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그것을 토대와 상부구조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형태들의 앙상블로 간주하는 것이다. 제습은 둘 중 후자를 선호한다. 특히, 그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델이 경제결정론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알튀세와 플라차스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이나 상대적 자율성과 같은 개념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맥락에서 그는 루만의 체계이론을 형태분석과 통합하려 한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사회이론이 칠레의 생물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Jessop, 1990).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의 구체를 생화학적 구체로 간주하는 엘슨의 해석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엘슨의 해석은 사회구조와 행위성에 대한 제습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상기한 것처럼, 엘슨은 사회구조와 행위성이 서로의 외부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차이와 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다루었다. 흥미롭게도 엘슨의 편서가 출판된 해에 출판된 『자연주의의 가능성』에서 로이 바스카도 같은 주장을 한다(Bhaskar 1979). 이러한 견해들이 구조와 행위성에 대한 제습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습에게 구조는 구조적으로 각인된 전략적 선택성이고 행위성은 구조를 지향하는 전략적 계산이다. 즉, 제습은 구조를 얘기할 때 행위성을 그리고 행위성을

얘기할 때 구조를 빠뜨리지 않는다(Jessop, 2005). 엘슨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양자 사이에는 차이만이 아니라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점들로 인해 엘슨의 해석을 간과하면 제습의 이론적 작업이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7. 맺으며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엘슨의 해석과 그 함의 그리고 영향들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엘슨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비와 제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필요조건들 중 하나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 글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엘슨의 해석에 대한 설명은 짧은 분량의 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엘슨의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다. 엘슨의 해석은 짧게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을, 아울러 매우 논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녀는 가치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체성, 결정, 노동, 노동의 네 범주들, 사회구조와 행위성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엘슨의 글 자체가 예외적으로 긴 분량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엘슨의 글은 심지어 서론과 결론도 없이 본론에 해당하는 세 개의 절로만 작성되어 있다. 그녀는 그 글의 배경에 대해 거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녀는 곳곳에서 상세한 설명 없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는 그녀의 글이 당시 가치론 논쟁에 참여하던 영국의 전문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글은 당시 발생하고 있는 논쟁에 개입하기 위해 매우 급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그녀의 글은 운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구문들로 작성되었고 일부 인용문에서는 단어가 누락되거나 기재를 잘못 하는 바람에 원문을 찾아보지 않으면 해석조차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의 글에서 너무 많은 이론가들을 반박하고 있기도 하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위에서 거론한 이론가들 외에도 뵘바베르크, 왈라스, 자본논리학과, 현대의 신고전파경제학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이 때문에 그녀의 글은 마르크스에 대해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라 하더라도 읽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편, 이 글이 예외적으로 긴 분량으로 작성된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책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더 이상 유행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묘사되거나 짧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필자가 만난 이들 가운데 인문지리학의 유관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어느 학생은 정치경제학 비판을 데이비드 하비의 프로젝트로 알고 있었고, 어느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는 계급중심성을 이유로 마르크스를 술하게 비판해 왔지만 그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 나는 최대한 충분히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 있다. 아울러 이는 엘슨의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글은 엘슨의 글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그녀의 핵심적인 논지만 소개하고 해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은 엘슨의 글을 직접 읽는 데, 나아가 마르크스의 글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독해하는 데, 나아가 이를 통해 그들의 영향을 받은 하비와 제습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심사완료일: 2022.06.22.

게재확정일: 2022.06.23.

최종원고접수일: 2022.06.25.

Abstract

**The Labour Theory of Value or the Value Theory of Labour?:
Diane Elson's Interpretation on Marx's Theory of Value**

Jihoon Park

The present article seeks to elucidate British feminist economist Diane Elson's interpretation on Marx's theory of value. According to Elson, the object of the theory is not a value in a capitalist society, but the historically specific determination of labour-form. In this regard, she cleverly distinguishes between the labour theory of value and the value theory of labour, and then presents the latter as Marx's theory of value. And her interpretation has been adopted and utilised by David Harvey and Bob Jessop that is influential in the field of critical human geography. For this reason, an understanding of her interpretation on Marx's theory of value is indispensable for an understanding of Harvey and/or Jessop's theoretical work. Nevertheless, Elson's work has been ignored in this countr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unambiguates her interpretation on Marx's theory of value and explicates its impacts on Harvey and Jessop's work.

Keywords: Labour theory of value, value theory of labour, Karl Marx, David Harvey, Bob Jessop

참고문헌

- 엘슨, 다이앤 외 엮음. 1998.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페미니즘 시각』. 서울: 공감.
- 권영경. 1996. 「가치론사에서 가치형태론의 의의」. 《한국경제학보》, 3권 1호, 27~56쪽.
- 김계환·임일섭. 1992. 「1970년대 프랑스 정치경제학 연구의 몇 가지 경향에 관하여: 화폐적 이단, 조절이론 그리고 ‘정치경제학 비판」. 《이론》, 3호, 224~259쪽.
- 김수행. 2011.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뒤메닐, 제라르·도미니크 레비. 2009.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서울: 그린비
- 류동민. 2002. 「가치와 가격」. 김수행·신정완 엮음.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모리시마, 미치오. 『맑스의 경제학: 가치와 성장의 이중이론』. 파주: 나남.
- 사드·필류, 알프레드. 2011. 『마르크스의 가치론』. 서울: 책갈피.
- 스라파, 피에로. 1986.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서울: 비봉출판사.
- 스위지, 폴. 2009.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서울: 필맥.
- 윤소영. 2009.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서울: 공감.
- 이정원. 1989. 「노동소외의 윤리와 과학: 맑스의 노동가치설에 대하여」. 《철학논구》, 17호 67~80쪽.
- 이진경. 1998. 「노동가치론의 몇 가지 전제에 관하여」. 《경제와 사회》, 39호, 139~153쪽.
- _____. 2004. 『자본을 넘어선 자본』. 서울: 그린비.
- 지주형. 2004. 「자본을 넘어서지 못한 『자본론』 읽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1권 2호, 303~328쪽.
- _____. 2015. 「문화이론가가 그린 신자유주의 사회의 총체화된 상: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문화과학, 2014)」. 《경제와 사회》, 105호, 259~269쪽.
- 폴리, 던컨. 1997. 「노동가치이론의 최근 동향」,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김석진 엮음. 서울: 공감.
- _____. 2015. 『자본의 이해: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강경덕 옮김. 서울: 유비온.
- 하비, 데이비드. 1982/1995.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최병두 옮김. 서울: 한울.
- 이정구. 2016. 「데이비드 하비의 경제 이론과 정치 비판」. 《마르크스21》, 15호, 108~127쪽.
- Althusser, Louis. 1975. *Reading Capital*. London: New Left Books.
- _____. 1977.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New Left Books.
- Bhaskar, Roy. 1979.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Sussex: Harvester Press.
- Dobb, Maurice. 1973. *Theories of Values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Ideology and Econom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son, Diane. 1979. *The Value Theory of Labour. The Representation of Labour in Capitalism*. London: CSE Books.

- Engels, Frederick. 1886/1990. "Ludwig Feuerbach and the End of Classical German Philosophy". In *MECW*. Vol.26, pp.353~398. London: Lawrence & Wishart.
- Gimm, Gong Heo. 2016. "Marx as a Thinker of 'the Global': The Evolution of Marx's Concept of the World Market and Its Place in a Border Intellectual Context." *Marxism 21* Vol.13, No.3, pp.210~241.
- Harvey, David. 2018. "Marx's Refusal of the Labour Theory of Value". <http://davidharvey.org/2018/03/marxs-refusal-of-the-labour-theory-of-value-by-david-harvey/>
- Hegel, Georg. 1807/1977.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gel, Georg. 1808/1966. "Who Think Abstractly". In *Hegel: Texts and Commentary*, edited by Walter Kaufmann, pp.113~118. Garden City: Anchor Books.
- Jessop, Bob. 1982. *The Capitalist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s*. Oxford: Martin Robertson.
- _____. 1985. *Nicos Poulantzas: Marxist Theory and Political Strategy*. London: Palgrave.
- _____.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Cambridge: Polity.
- _____. 2002. *The Future of Capitalist States*. London: Polity.
- _____. 2004. "On the Limits of *Limits to Capital*". *Antipode*, Vol.36, No.3, pp.480~496.
- _____. 2005. "Critical Realism and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New Formations*, Vol.56, pp.40~53.
- _____. 2007. "Soical Form, Social Formation, Form Analysis". In *Dictionary of Critical Realism*, edited by Martin Hartwig, pp.421~422. London: Routledge.
- _____. 2012. "Leftist Strategy". *Transformation! European Journal for Alternative Thinking and Political Dialogue*. Vol.10, pp.9~17.
- Lefebvre, Henry. 1973/2016. *Marxist Thought and the C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rx, Karl. 1844/1975.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of 1844". In *MECW*. Vol.3, pp.229~346.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45/1975. "Theses on Feuerbach". In *MECW*, Vol.5, pp.3~5.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47/1976a. "Demand". In *MECW*, Vol.6, pp.574~575.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47/1976b. "The Poverty of Philosophy: Answers to the Philosophy of Poverty by M. Proudhon". In *MECW*, Vol.6, pp.105~212.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57-8/1986. "Outline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of 1857-58) [First Instalment]". In *MECW*, Vol.28 (First Version of Capital), pp.49~537.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58/1983b. "Marx to Engels (London, 2 April 1858)." In *MECW*, Vol.40, pp.296~304.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59/1987.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art One." In *MECW*, Vol.29, pp.257~417.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67/1996. *MECW*, Vol.35: Capital. Vol.1.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69/1988. "Marx to Kugelmann. 3 March 1869." In *MECW*, Vol.43, pp.231~233.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73/1996. "Afterword to the Second German Edition". In *MECW*, Vol.35: Capital, Vol.1, pp.12~20.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75/1989.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MECW*, Vol.24, pp.75~99. London: Lawrence & Wishart.
- _____. 1881/1989. "Marginal notes on Adolph Wagner's LEHRBUCH DER POLITISCHEN OEKONOMIE". *MECW*, Vol.24, pp.531~559. London: Lawrence & Wishart.
- Marx, Karl and Frederick Engels. 1846/1975. "The German Ideology". In *MECW*, Vol.5. London: Lawrence & Wishart.
- Park, Jihoon. 2018. *A Cultural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s Development Model in Vairegated Capitalism*. Doctoral Thesis. Lancaster University.
- Rubin, Isaak. 1973.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Montreal: Black Rose Books.
- Sraffa, Piero. 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dman, Ian. 1977. *Marx after Sraffa*. London: New Left Books.
- Sum, Ngai-Ling and Bob Jessop. 2013. *Toward a Cultural Political Economy: Putting Culture in Its Place in Political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 Wells, Julian. 2017. "Marx Reads Quetelet: A Preliminary Report". *MPRA Paper*No.98255. <https://mpra.ub.uni-muenchen.de/98255/>